

“지미션, 쪽방촌 독거노인지원 캠페인 펼쳐”

지미션의 쪽방촌 독거노인지원 캠페인

사단법인 지미션(대표 박충관)이 한 평 남짓한 쪽방에서 지내는 독거노인을 위한 후원캠페인을 진행한다. 지미션은 쪽방촌에서 지내는 거주자 수만 3,200여 명(2018년 서울시 기준)으로 절반가량은 독거노인이며, 대부분 기초수급 대상자에 해당돼 독거노인들의 자립과 더 나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쪽방촌에서 지내는 독거노인들은 화장실도 없는 한 평 남짓한 쪽방에서 지내고 있으며, 추위에 노출되고 있어 다가오는 겨울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박충관 지미션 대표는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에 사는 사람들은 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화장실과 주방은커녕 온수와 냉난방도 되지 않아 ‘지옥과 아래 쪽방’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어렵게 지내고 있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쪽방촌 외 반지하, 고시원 등의

열악한 독거노인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모인 후원금은 쪽방촌 독거노인들의 기초

생계비, 생필품 지원 등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지미션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설립된 NGO로 국내 아동 및 장애인지원사업, 독

거노인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지미션의 쪽방촌 독거노인지원 캠페인은 지미션에서 확인 가능하다. www.gmission.or.kr 전화(02-6334-0303)로 문의할 수 있다.



한교총, 문체부 장관에 “기독교 대표성 요청”

한교총 문화체육관광부 종교법인화 추진



한교총이 기독교 대표성을 갖기 위해 문체부 등 종교법인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기독교 단체 대표성은 문체부에 등록된 한기총이 유일하지만 한기총 대표회장의 반 정부 행보를 하고 있는 빈틈을 노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8개 교단 신임 총회장들이 신임 주요 교단장 간담회를 가졌으며, 이 자리에는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

의 초청으로 합동의 김종준, 통합의 김태영, 합신의 문수석, 개혁의 채광명, 기정의 육순중, 기감의 윤보환, 기하성의 이영훈, 기침의 윤재철 목사가 참석했다. 이날 박양우 장관은 “여러 가르침을 주시면 정책적으로 반영하겠다”면서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합동 총회장 김종준 목사는 “여러 교단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아주 기쁘게 생각한다”며 “오늘 모인 교단장들은 정부 발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분들이다. 대한민국이 더욱 아름다운 나라로 성장하기 원한다”고 말하고 한교총은 지금 국가발전을 위해 힘을 합치고 있다”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한교총에 힘을 실어주어서 대표성을 갖도록 해주면 감사하겠다”고 요청했다.

또한 교단장들은 △기독교역사관 건축 지원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에 장관 참석 △한교총 문화체육관광부 종교법인화 등에 대해서도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하지만 한교총이 기독교 대표성 달라고 요구하였지만 문체부가 임의로 한기총 등록법인을 일방적으로 해산 또는 승인 취소 할 수 없어 실효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 윤광식 기자

보은성시화운동본부 창립, 본부장에 윤경현 목사 취임

인구 3만3천87명의 충북 보은군 성시화운동본부 창립예배 및 본부장 윤경현 목사 취임예배가 17일 오후 4시 보은군 보은읍 보은순복음교회(윤경현 목사)에서 열렸다.

충북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 정삼수 목사) 주관으로 열린 예배는 보은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박종선 목사의 인도로 최상의 목사(보은성시화운동본부 부본부장)가 대표기도를 했다.

최 목사는 “보은군 70여 지역교회와 목회자와 성도가 말과 거룩한 행실로 화해와 연합을 이루고 가정마다 교회마다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다. 또한 “오해와 편견과 악한 영이 떠나가고 우상의 견고한 진이 무너뜨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다.

충북 대표회장 정삼수 목사는 열왕기상 18장 30-40절을 본문으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정 목사는 “오늘 성시화운동은 생수를 끌어 올리기 위해 깊은 지하수에 추를 박는 날”이라며 “깊이 추를 내리고 생수를 끌어 올리면 많은 사람이 물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 천국 갈 수 있는 네 비게이션이 있다. 또한 용서 받는 방법도 예수 그리스도”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범한 죄와 허물을 씻어 주셨다. 이 엄청난 진리를 선포해야 한다.”고 도전했다.

이어진 취임식에서 세계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전용태 장로는



윤경현 본부장에게 취임패를 전달했다. 정삼수 충북 대표회장은 보은군성시화운동 기를 전달하고 윤경현 본부장의 취임사에서 “전교회가 전복음을 전신민에게 전하여 행복한 시민, 건강한 가정,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 성시화운동이 보은군에서도 시작하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시작은 미약하지만 세계성시화운동본부의 정체성에 따라 도덕성 회복, 인간성 회복, 지역 복음화를 위해 열심히 달려

가겠다.”고 밝혔다. 윤 목사는 1982년 보은순복음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해 지금까지 사역을 해왔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가 본부 사역보고를 했다. 김 목사는 “성시화운동은 크게 세 가지 사역을 한다. 기도운동, 전도운동, 사회책임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면서 “지역과 국가를 위한 기도운동을 계속 진행해오고, 교인마다 복음을 전해 교회마다 배가부흥하고 지역이 복음으로 충만하도록 전도훈련과 전도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운동, 생명존중운동 중독예방운동, 동성애 동성

혼 합법화 저지를 위한 입법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용태 대표회장은 격려사에서 “1997년 정주지검 검사장으로 부임해서 자녀안심학교 학교보내기운동을 했다. 그때 보은과 제천을 방문했다.”며 “보은군에서 성시화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황무지에서 장미꽃같이 피어나는 복음의 도시가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또한 “성시화운동은 전도를 많이 하고 내년 총선에서 기도하고 투표하고, 정책 보고 투표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사회를 맑게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예배에는 충북기독교연합회 회장 음태봉 목사(아하!순복음교회)와 청주시기독교연합회 임원들이 참석해 보은성시화운동본부의 출범을 축하했다. 보은군성시화운동본부는 본부장 윤경현 목사(보은순복음교회), 부본부장 안신홍 목사(보은교회), 사무총장 박종선 목사(주성교회), 교육훈련원장 최우중 목사(구인교회), 서기 최상인 목사(복실성결교회)를 선임했다.



• 한국의전협동조합에서 • 고품격 장례서비스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장례서비스는 먼저
비용은 100% 후불로 정산**

**장례서비스카드
무료 발급**

단순장례 : 1.200.000원
기초장례 : 2.100.000원
고급장례 : 2.900.000원

**필요한 용품만 을 선택하고 결제하는 합리적 장례
전문 장례지도사가 내 가족 내 형제 와 같 이 함께 합니다.**

아름다운 동행, 함께하는 이웃
VIP Premium CARD (SH-KCS-838373378)
회원용 장례서비스 카드
본 카드를 소지하신 분은 50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복리후생시스템 10~50%까지 할인서비스
한국의전협동조합
www.kccs.co.kr

VIP 선택형 장례서비스 상품
단순장례 1,200,000 | 기초장례 2,100,000 | 고급장례 2,900,000
*필요시 선택할 수 있음

1. 수의장비	300원	6. 보은비사	300원
2. 제단장비	200원	7. 도무제사	400원
3. 보자장비	200원	8. 귀뚜라미사	300원
4. 여사장비	100원	9. 장례비사	300원
5. 관 비사	200원		

무료 상담 전화 **1644-2542** (상용휴대폰, 공짜이동전화)
합계한 돈을 위한 마지막 약속, 그것은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장례 의전의 전문화 장례 의전의 명품화 한국의전 협동조합은 다릅니다.

조문순서

상품검색 : NAVER 한국의전협동조합 확인

상품검색 : NAVER 밴드 한국의전협동조합 가입



5천만 국민이 함께하는



바른 장례 우수기업 선정
한국의전협동조합
Korea Culture Ceremony Cooperatives



상품가입 및 상담문의
장례 행사 연중무휴 24시 운영
전국 대표번호 : 1644-2542



독실한 기독교인 월로 배우 91세 신영균 500억 기부

“나중에 내 관 속에 성경책 하나만 함께 묻어달라”

배우 신영균 선생은 이렇게 말한다. “이제 내가 나 이 아흔을 넘었으니 살아봐야 얼마 나 더 살겠습니까. 그저 남은 거 다 베풀고 가면서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어요. 나중에 내 관 속에는 성경책 하나 함께 묻어 주면 됩니다.” 91세 배우 ‘남기고 싶은 이야기’ 연재 신영균씨. 평생 술·담배·도박 멀리하고 살아, 연예인 남편 결사반대했던 아내 평생 한 사람만 사랑하겠다는 설득. 은막서 잘 나갈 때 가족 생각뿐. 전성기 땀 한 해 집 열채 값 벌어. 차곡차곡 모아 사업 밑천 만들어. 성공 비결? 절대 무리하지 않는 것. 7억원에 산 명보극장 500억 가치

원로배우 신영균(91·사진)씨가 인생 말미에 띄우는 편지다. 1960~70년대 한국 영화계를 이끈 그는 최근 중앙일보와 만나 “앞으로 남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아직 구체적 계획까지 세우진 않았지만 “영화계 지원과 후배 육성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연예계 최고의 자산가로 이름난 신씨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상징으로 꼽힌다. 2010년 명보극장(명보아트홀)과 제주 신영영화박물관 등 500억원 규모의 사유재산을 한국 영화 발전에 써달라며 쾌척해 화제가 됐다. 모교인 서울대에도 시가 100억원 상당의 대지를 발전기금으로 기부했다. 배우 최

고의 인기를 누렸던 60~70년대에 많게는 1년에 30편씩 영화를 찍어 가며 모아 온 재산이다. “91년 영화 같은 삶 후회는 없다. 남은 것 다 베풀고 갈 것” 아름다운 마무리가 “죽고 가는 삶”이라고 보시나요. “크진 않지만 내 노후생활을 위해 조금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걸 베풀고 싶은 거죠. 자식들은 다 먹을 게 충분하고....” 신씨는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 평생 술·담배는 물론 여자와 도박도 멀리해 왔다. “제가 조금 재미없게 살았죠. 그래도 원칙 하나만큼은 절대 놓치지 않았다고 자부합니다.”

구순의 신씨는 지금도 규칙적으로 산다. 오전 10시 서울 명동 호텔28 사무실에 출근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호텔28은 영화 촬영장 분위기가 물씬한 부티크 호텔로, ‘28’은 이곳 명예회장인 신씨가 태어난 해(1928년)를 가리킨다. 그의 삶을 돌아보는 첫 인터뷰도 이곳에서 진행됐다. 1m72cm에 68kg, 회색 재킷 정장에 중절모를 쓴 신씨의 첫인상은 ‘28년생’보다 ‘28정춘’에 가까웠다.

나이의 건강 비법이 있다면 “한창 촬영할 때는 피곤하니까 초콜릿·사탕을 많이 먹었어요. 40대 중반쯤 되니 당뇨가 왔어요. 그래서 단 음식은 주의하고 하루 5000보 이상 걸으려고 노력합니다. 매일 오후 헬스장에 가서 한 시간 이상 가벼운 근육운동과 러닝머신을 해요.” “배우 시절 너무 소리를 질러서인지 기관지가 좀 안 좋은 것 빼고는 다 괜찮아요. 나이 먹으니 체중이 자주 줄어서 68~70kg 왔다 갔다 하는데 한창 시절엔 85kg까지 나갔어요.” 신씨가 2010년 사회에 내놓은 명보극장은 그의 보물 1호였다. 1977년 8월 당시 7억 5000만 원에 인수했던 극장의 자산가치가 40년 새 60배 넘게 뛰었다.

▲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신씨는 “나중에 내 관 속에 성경책 하나만 함께 묻어달라”고 말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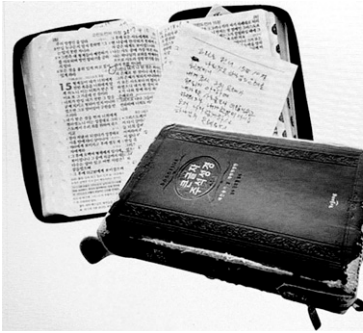
“누가 500억원 줄 테니 팔라고 하긴 했었는데 내가 거절했죠. 지금 이렇게 좋은 일에 쓰면서 오래 보존할 수 있으니 훨씬 좋지 않나요.” 신씨의 기증 재산을 토대로

2011년 신영균영화예술재단이 출범했다. 재단은 건물 임대료와 기부금 등 각종 수익금으로 9년째 영화인 자녀 장학금 지급, 단편영화 제작 지원 등을 하고 있다. 지난 6일에는 ‘제9회 아름다운 예술인상’ 시상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연극·영화계 인사들의 공로나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한 상인데, 이 분야의 상급(5개 부문 총 1억원)으로는 최고 액수다.

마지막 자식 같은 극장을 내놓은 것은 “60~70년대에는 내 영화를 맡겼 틀 극장이 너무나 갖고 싶었죠. 하지만 이제 욕심이 없어요. 그저 마지막으로 내가 가지고 갈 것은 40~50년 손때 묻은 이 성경책 하나예요. 혜진아(딸을 보며), 이걸 나랑 같이 묻어 다오.” 신씨는 가족이 다 해어진 성경책 한 권을 만지며 말했다. 딸은 그저 미소만 지을 뿐이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소리 내 읽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에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를 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런 말을 때문에 오늘날 신영균이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허허. “한국영화 전성기로 꼽히는 60년대는 배우 신영균에게도 황금기를 안겼다. 60년 영화 ‘과부’로 데뷔하면서 그간 연극으로 다져온 연기 실력을 단박에 인정받았다. 요즘으로 치면 벼락스타로 떠올랐다. 이후 ‘상록수’ ‘연산군’ ‘빨간마후라’ ‘미워도 다시 한번’ 등 19년 동안 300여 편에 출연했다.

신씨는 또 다시 기회가 온다면 “글쎄요... 머슴, 왕, 군인, 사장 뭐 안 해본 캐릭터가 거의 없어요. 주로 상남자 스타일이었죠. 심지어 예수, 석가모니도 했더니깐요.” 그리고 다시 태어난다면 “신영균을 선택하겠어요. 배우 하며 이런 인생, 저런 인생 다 살아봤으니까요. 허허허, 정말 후회 없이, 유감 없이 살았습니다.”

“윤정희와 마지막 영화... 알츠하이머 안타까워” 선뜻 믿기지 않았다. 일생을 정리하는 단계에서 후회 없이 살았다



고 자신할 수 있는 이가 과연 얼마나 될까. “정말 후회가 없느냐”고 여러 번 재차 물어도 대답은 언제나 “그렇다”였다. 신씨는 78년 ‘화조’를 끝으로 총무로에서 은퇴했다. ‘화조’ 등 40여 편에서 그와 호흡을 맞춘 배우 윤정희(75)씨 얘기가 나오자 “참 아까운 사람이예요.”라는 말부터 나왔다. 윤씨가 10년째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 알려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지만 신씨는 이미 윤씨의 투병 사실을 알고 있었다. “지나해가지도 신영균예술문화재단 이사으로 활동하면서 행사에도 자주 왔어요. 남편 백건우 피아니스트 공연이 있으면 우리 부부를 빠뜨리지 않고 초청했었죠. 우리 집에서 종종 식사도 함께 했는데 치매라니 정말 안타깝게 됐어요.”

신씨는 60년대 엘리트 배우로 주목을 받았다. 서울대 출신의 잘 나가는 치과 의사에서 배우로 인생 향로를 바꿨다. 무엇보다 연기에 대한 갈망이 컸기 때문이다. 어릴 때부터 연기에 대한 열정을 불살랐던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대학 진학도 포기하고 연극 무대에 뛰어들었다. 어머니가 신발을 던져가며 만류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2년 동안 지켜본 연극판은 불안정하고 무질서했어요. 연극만으로는 생활이 안 될 거라고 보고 뒤늦게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55년 서울대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2년 후 서울 회현동에 ‘동남치과’를 열었어요.”

어떻게 배우를 택하게 됐나요. “어느날 조공하 감독하고 영화 평론가 허백년씨가 찾아왔어요. 치과 의사를 하면서도 연기에 굶주려 국립극단에 입단해 활동하던 때였는데, 내가 ‘여인천하’에서 조공조역을 맡아 하는 걸 보고 영화 ‘과부’에서 머슴 성철이 역을 시키면 딱 맞겠다 생각한 모양이에요. 머

슴 역이다 보니 머리를 뺄뻑 깎으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환자 불일이 좀 걱정이긴 했는데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영화에 출연하면서도 대진 의사를 고용해 1년 정도 치과 일을 병행했는데, 저한테 진료를 받으려는 환자들이 늘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치과를 그만두게 된 거죠.”

아내의반대가 심했을 텐데요. “아내는 ‘내가 치과 의사랑 결혼했지 판파라랑 결혼한 거 아니지 않냐’면서 결사 반대를 했죠. 그 당시 배우들은 스캔들이 워낙 많았어 아내도 그걸 걱정한 모양이에요. 나는 ‘절대 그럴 일 없게 하겠다’ ‘평생 한 여자만 사랑하겠다’고 설득해 허락을 받았고 그 약속을 지켰어요. 실은 아내도 내 연극을 보면서 ‘이 양반은 하나님아 주신 talentos가 있으니 연기를 해야 된다’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60년대 영화배우들은 사실 목숨을 걸고 일했다. 수준 높은 컴퓨터 그래픽 기술도 스텐트맨(대역 배우)도 없던 시절이다. 안전장비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다. 신씨도 여러 번 생사를 오갔다. ‘91의 해병’, ‘빨간마후라’ 촬영 때는 실탄이 날아들었고, ‘나그네’ 촬영 때는 물에 빠져 익사할 뻔했다.

“윤정희, 나만 보면 같이 영화하자고 해” 그는 상복도 많았다. ‘연산군’(1962), ‘열녀문’(1962)으로 1, 2회 대종상 남우주연상을, ‘상록수’(1961), ‘빨간마후라’(1964)로 아시아영화제 남우주연상 등을 받았다. 그가 받은 각종 트로피들은 호텔 28, 신영영화박물관 등 곳곳에 전시돼 있다. 신씨는 총무로의 ‘바른 생활 사나이’로 유명하다. 화려한 스크린과 함께하면서도 가정의 책임, 가정의 행복을 삶의 1순위에 올려놓았다. 60년대 사생활 관리 소홀로 재산·가족 등을 잃은 많은 스타 배우들과 차별화된 지점이다. 그는 “다른 배우들보다 영화를 늦게 시작했고, 이미 아내와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책임감이 더 컸던 것 같다”고 돌아봤다.

60년대 주연 배우들의 수입은 어땠나요. “집 한 채 가격이 200만~300만원 하던 시절인데 나 같은 경우 편당 70만원 정도는 받았던 것 같아요. 1년에 20~30편씩 ‘검치기 출

연’을 할 때도 있었으니까, 이때 차곡차곡 모아둔 돈이 나중에 사업 밑천이 됐죠.” 신씨는 사업 수완도 뛰어났다. 60년대 초 이름난 빵집이었던 명보제과를 600만원에 인수했다. 당시 명보제과는 뉴욕제과·태극당·풍년제과 등과 함께 4대 제과점으로 인기를 끌며 25년간 성업했다.

사업마다 성공한 비결이라도 있나요. “노후를 생각하고 사업을 시작할 거라 절대 무리를 하지 않습니다. 돈이 좀 있다고 하면 여기저기서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말들이 많지만 난 모험은 하지 않고 안전한 투자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빚을 안 지고 나름 안정되게 살 수 있었네요.”

올해가 한국영화 100주년인데. “그럼요. 내 나이를 보세요. 한국 영화 100년 지킴이나 마찬가지 아닐까요. 허허. 앞으로 100년이 더 기대됩니다.” 신씨의 90년 영화 같은 인생은 앞으로 매주 두 차례 ‘남기고 싶은 이야기’에서 만날 수 있다. 신씨는 ‘빨간마후라, 후회 없이 살았다’ 한마디로 자신의 긴 여정을 압축했다.

(신영균이 걸어온 길) 1928년 11월 6일 황해도 평산 출생. 1955년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1960-78년 영화 과부로 데뷔. 연산군, 빨간마후라, 등 300여편 출연. 1968년 한국영화배우협회장, 한국영화인협회장,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장등 역임. 1996-2004년 제 15-16대 국회의원. 수상 경력은 제1,2,4회 대종상 남우주연상, 제9-11회 아시아영화제 남우주연상, 대통령 동백훈장 수상 외 다수. (출처-중앙일보) 사)한국신문방송협회 제공



지저스타임즈 www.JTNTV.kr 기독교인터넷방송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다-07837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대표고문: 피종진 목사 이사장: 하창범 목사 사장: 소진우 목사 발행인: 정기남 목사

전국 24개 지사 / 해외 27개국 지사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지양로 176번길 32호 대운빌라 2층 202호 (고강본동 574-10, 대운빌라 2층 202호)
▶E-mail : jtntvcpj@hanmail.net / jtntvcpj@naver.com
▶전화 : 전화: 032)574-6574, 팩스: 032)672-3031
▶H.P : 010-5468-6574
▶정성을 다한 후원금은 도시 농어촌 미자립교회와 해외지사에 신문을 보내는 선교사가 됩니다. 문서선교에 후원이사가 되어 주십시오.
▶1구좌 후원금 10,000원부터~
▶1년 구독료 : 48,000원
▶후원계좌(예금주 : 정기남)
하나은행 758-910292-36807 / 농협 455030-56-005509

축 2019년 추수감사 예장진리총회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금춷대 진리총회

총회장

서기

부서기

회록서기

부회록서기

회계

부회계

총무

장한국 목사
(주사랑교회)

박민규 목사
(천성교회)

전상렬 목사
(새예루살렘교회)

김은임 목사
(감사교회)

유순옥 목사
(조예교정선교회)

김정미 목사
(새예루살렘교회)

김진환 목사
(주사랑교회)

정요한 목사
(꿈의교회)

본 교단 진리총회는 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 소속이며 건강하고 보수적인 신앙으로 선교에 중점을 두고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외치며 선포하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표준총회입니다.
본 교단과 뜻을 같이 할 개인과 교회, 교단의 가입을 적극 환영합니다!

진리총회 : 경기도 의왕시 계원대학로10, 7층 대림프라자 고층5 Tel 031-424-7612
총 회 장 : 장한국 목사 H.P 010-4436-7060, 서기 : 박민규 목사 010-9621-9627

제74차 경찰의 날 기념 경찰청 한국경목총회 제주경찰청 위문

경찰청 한국경목총회(총회장 이창식 목사)는 2019년 경찰의 날 74주년을 기념하여 지난 10월 28일(월)~30일(수)까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청장 김병구 치안감)을 위문하고, 불철주야 60만 제주시민과 20만 관광객의 안전과 치안을 담당하며 수고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경찰과 직원들을 위로하고 축복기도로 격려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13만 경찰, 1만3천 해양경찰, 60만 경찰 가족들의 영혼구원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총장 홍향표 목사의 인도로 개회 예배에 언론대표 정기남 목사(지저스타임즈 CJTN TV)가 기도, 성경봉독(행 1:8)에 차분조 목사, 한경총증경회장 최현기 목사는“성령의 역사”에 대해 말씀을 선포하고, 총장 홍향표 목



사는 ‘경목조직과 사역’에 대해 PPT를 통해 설명했다. 이어 한경총 상임회장 허 식 목사가 축사를, 총회장 이창식 목사는 임문규 대표, 성순회 부국장 등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이어서 한경총 총회장 이창식 목사의 축도로 마쳤으며, 한경총 증경총회장 최현기 목사는 은지농수산(제주할망 오메기떡) 임순자 대표가 대접하는 만찬을 위하여 축복기도를 했다. 은지농수산(제주할망 오메기떡) 임순자 대표는 임문규

집사 누님이 된다.)

한편 한국경목총회 총회장 이창식 목사, 상임회장 허 식 목사, 증경총회장 최현기 목사, 총장 홍향표 목사, 차분조 목사, 지저스타임즈 대표이사 정기남 목사, 성순회 부국장, 생명길상교회 대표 임문규 집사 등 일행은 제주 한림공원, 국립 제주박물관, 제주 이기풍선교기념관 등을 돌아본 후 30일 오후 7시 50분 아시

아나 항공편으로 귀환했다.

예장합동보수 한중노회 여주 수양관에서 교역자회 열어 소망교회 소망수양관 개원 축하 예배 및 교역자 월례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보수) 한중노회 교역자회(회장 김국태 목사) 월례회가 지난 11월 11일(월) 오후 1시 30분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초원리 소재 소망교회 수양관(담임 서동기 목사)에서 1부 예배, 2부 월례회, 3부 기도회 순으로 진행되었다.

교역자회 서기 배영자 목사의 인도로 1부 예배에 한기정 목사가 기도, 소망교회 여주 수양관 서동기 목사는 삼상 17:31-37절을 본문으로 “체합적인 신앙”이란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서동기 목사는 이날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하나님의 은혜로 36년을 목회해온 축복받은 목회자라며 왜 하나님의 은혜인가 왜 최고의 축복받은 목회자인가를 설명하면서 36년간을 목회를 해온 가운데 갑자기 몸이 쇠약해

지면서 식욕도 떨어졌고,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본 결과 암 선고를 받았다. 의사는 20일간의 경과를 보고 수술을 하는데 6시간의 대수술을 받는다고 한다.

그래서 서 목사는 20일 동안 새벽마다 내 병 고쳐내 내 병 고쳐내 찬송을 부르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기도의 힘이 이처럼 큰 역사인 것을 체험했다. 대수술을 앞두고 아침부터 배가 뒤틀리고 아파서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데 혈변을 쏟았는데, 그 결과 병원에서 대수술 직전 검진을 받고 기다리는데 의사의 진단결과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이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다며 이날 설교도 간증도 힘 있게 외치며 선포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체험적인 신앙 간증이었다. 이어 현금기도 한복희 목사, 광고 배영

자 목사, 교역자 회장 김국태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2부 월례회를 거쳐, 3부 순서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하여 조영만 목사, 총회와 한중노회, 지교회를 위하여 김관호 목사, 소망교회 여주소망수양관을 위하여 임원택 목사, 여주전원마을 이규필 목사를 위하여 권혁화 목사 등이 기도했다.

한편 여주 소망교회 수양관은 20여 명이 합숙할 수 있는 공간과 예배 처소, 식사생활이 가능한 싱크대 등이 시설되어 있다. 소망수양관 연락처(010-3342-7302) 또한 여주 전원마을은 택지 분양과 주택이 분양 중이며 아늑하고 살기 좋은 전원마을이다. 이곳 대표는 예장합동보수 증경총회장 이규필 목사이다. 연락처(010-7474-3173).

예장합동보수 한중노회 제179회 정기노회 개최

한중노회 신임노회장 한기장 목사 선출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보수) 한중노회 제179회 정기노회가 지난 10월 21일(월) 오전 11시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 40번길 세향교회(담임 김관호 목사)에서 개최되어 부노회장 한기장 목사를 만장일치 신임노회장에 선출했다.

1부 개회예배는 노회장 김국태 목사의 인도로 시작되어 부노회장 한기장 목사(주사랑교회)의 기도, 서기 김관호 목사(세향교회)는 히 3:1-6절을 봉독, 김국태 목사(강서교회)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

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증경노회장 서동기 목사(서울소망교회)의 축도로 마쳤다.

2부 성찬예식은 증경노회장 이규필 목사(동천교회)의 집례로 진행되어 부회계 한복희 목사(양문교회)가 기도, 이규필 목사는 오전 11:23-29절을 중심으로 “성찬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분병,분찬위원은 김승환 목사(한빛교회), 권혁화 목사(사온교회)가 나섰으며, 집례자 이규필 목사의 축도로 성찬예식을 마

쳤다.

3부 제179회 회무처리는 노회장 김국태 목사의 사회로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 임원선거에서 선출된 신임원은 노회장 한기장 목사(주사랑교회), 부노회장/서기 김관호 목사(세향교회), 부노회장 박기철 목사(홍제중앙교회), 회의록서기 송창훈 목사(새샘물교회), 부회기록서기 배영자 목사(금천시온교회), 회계 한복희 목사(양문교회), 부회계 이혜숙 목사(두손을 모은교회) 등이다.



전태식 목사 초청 성경목회 세미나

OC한인여성목사회 주최

OC한인여성목사회(회장 이현옥 목사)는 지난 4일-5일 양일간 순복음서울전주 초대교회 담임 전태식 목사를 초청 ‘미민 교계를 다시 일으켜 세우라’는 주제로 성경목회 세미나를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한기형 목사), 남가주한인목사회(회장 김관진 목사), 남가주장로협의회(회장 김경균 장로), OC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이서 목사), OC목사회(회장 김근수 목사), OC장로협의회(회장 김태수 장로),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회장 민 김), 미주 복음방송(사장 이영선 목사), 크리스찬비전신문사 & 비전복음방송(대표 이정현 목사),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증경회장 단 후원으로 GBC미주복음방송 공개홀에서 개최했다.

전태식 목사는 ‘의로운 아벨’(요한일서 3장 12절)이란 제목으로 세미나를 인도했다. 전 목사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여진 연고로 죽었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우니라’(요한일서 3장 12절). 오늘 본문말씀은 하나님과의 수직적 사랑의 교제가 현실 속에서 인간과의 수평적 사랑으로 이어져야 함을 말하고 있다. 세배대의 둘째 아들 사도 요한은 사랑에 따르는 꾀박의 당연성, 사랑의 필연적 이유, 사랑의 구체적 방법, 사랑의 내세적 약속, 사랑의 현재적 약속 등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우리가 현실적 어려움 중에서도 능히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깨달은 그 실천을 가능케 하는 동기와 보상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는 사랑을 행하지 않는데 대한 신적 심판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한다. 또한 야고보서 2장 13절에서 ‘공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공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공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진정한 믿음은 바른 행위를 동반한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했다.

전 목사는 또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날 목회



▲전태식 목사가 미주복음방송 공개홀에서 성경세미나를 인도하고 있다.

자들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를 닮아야 한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차별을 금하고 있는데다가, 그에 따른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만일 교회가 배금주의에 오염되어 가난한 자를 계속 차별화한다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고 급기야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속적 단체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며 지 급이라도 늦지 않았다. 철저하게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자”고 강조했다.

로스앤젤레스 비전신문방송 이현옥 기자

축 2019년 추수감사 예장합동(보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시 136:1)

총회장

부총회장

서기

부서기

회의록서기

회계

부회계

총무

정호석 목사
사랑의교회

강대일 목사
명안교회

김삼대 목사
반석교회

서재식 목사
풍성한교회

전종복 목사
안락교회

강치현 목사
일일교회

김주현 목사
발라리아교회

송인섭 장로
양문교회

이정수 장로
전북교회

임삼국 목사
전북북지교회

총신대 이사장

총신대 학장

목회대학원장

이규필 목사
동천교회

윤석철 목사
전북교회

서동기 목사
소망교회

사단법인 예장합동보수연합선교회

이사장 : 이규필 목사

총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153길 94, [가산동]
☎ : 02)854-1326, Fax 02)496-0181 H.P 010-7474-3173

예장진리총회 대한노회 제23회 정기노회 열어



예장진리총회 대한노회(노회장 장한국 목사)는 지난 10월 15일 (화) 오전 11시 서울시 은평구 용암로 소재 천성교회(박민규 목사)에서 제23회 정기노회를 개최하고 노회장 장한국 목사를 비롯해 전 임원이 유입되어 한 회기를 향해 순항의 뜻을 올렸다.

노회에 앞서 1부 개회 예배는 서기 박민규 목사의 인도로 시작되어 김은임 목사가 기도, 유순옥 목사의 특송, 노회장 장한국 목사는 “장자를 은잔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주제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2부 성찬식은 정요한 목사의 집례로 진행되고, 분병, 분잔위원은 김진환 목사, 이미장 목사가 맡았다. 천성교회에서 준비한 중식 후 오후 2시 3부 회무처리에서 의장 장한국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김정미 목사가 기도하고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 임원선거에서 노회장 장한국 목사를 비롯해 임원 정원이 유입됐다. 이어서 예산 심의를 거쳐 안전토의가 있는 후 폐회되었다. 이날 폐회예배는 전산열 목사의 기도, 노회장 장한국 목사의 설교, 축도 순으로 마쳤다.



“지파운데이션-싱글즈-메이크프렘, 저소득 청소년 후원캠페인 N병템 챌린지 펼쳐”

당당한 싱글들의 라이프 스타일 매거진 <싱글즈>가 스칸디나비아 실용주의 코스메틱 ‘메이크프렘’과 국내외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국제개발협력 NGO ‘지파운데이션’과 함께 저소득 청소년을 후원하는 캠페인을 진행한다.

‘N병템 챌린지’로 불리는 이번 캠페인은 청소년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지원하는 취지 아래 오는 10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진행된다.

무한한 가능성을 상징하는 알파벳 ‘N’을 자유롭게 표현해 인스타그램에 공유하면 캠페인 해시태그를 건 포스팅 개수만큼 메이크프렘 안심크림을 국내 저소득 청소년에게 기부하는 방식으로 남녀노소 모두 간단하게 참여할 수 있어

전국민 참여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양정원, 이가은, 이유진, 신원호, 우주소녀 설아 등 다양한 셀럽도 이번 ‘N병템 챌린지’에 동참하여 청소년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응원한다.

한 편, 이번 기부 프로젝트의 자세한 참여 방법과 셀럽들의 응원 영상은 <싱글즈> 공식 인스타그램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파운데이션은 2016년 외교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국제개발협력 NGO이며, 국내 아동·청소년지원사업, 독거노인지원사업 등을 비롯해 해외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교육지원, 보건의료사업 등 활발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양정원, 이가은, 이유진, 신원호, 우주소녀 설아 등 다양한 셀럽이 ‘N병템 챌린지’에 참여하고 있다.



순복음춘천교회 제2회 춘천시민 초청 게이트볼대회 개최



지역사회를 위하여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고 성시화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순복음춘천교회(담임 이수형 목사)가 작년에 이어 “제2회 순복음춘천교회기 춘천시민 초청 게이트볼대회”를 11월 1일(금) 춘천신복체육공원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게이트볼대회는 지역사회와 어르신들을 섬기는 사랑나눔 실천운동 및 성시화 운동,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체육활동참여를 통한 건강증진, 게이트볼 동호인들의 저변확대의 목적으로 개최하였다.

순복음춘천교회 주회, 춘천시 게이트볼협회(회장 김흥복) 주관, 강원일보, 춘천MBC, 강원CBS, CTS영서방송, 사랑나눔 강원지회, 춘천북부노인복지관, 춘천성서화운동본부 후원한 이번 대회는 춘천시 게이트볼 동호회 42개팀 약 350여명의 선

수들이 참가하였으며, 11월 1일 오전8시부터 오후5시까지 경기가 진행되었다. 우승팀에게는 상장과 부상과 우승기를, 준우승과 공동3등, 장려상 팀에게는 상장과 부상이 전달됐다.

개회식은 정종승 목사의 사회로 내빈소개, 국민의례, 이수형 목사의 개회사 및 개회선언, 김영명 장로(총남선교회회장)의 기도, 김흥복 회장(춘천시 게이트볼협회)의 환영사, 박인관 목사(춘천성서화운동본부 이사장)의 격려사, 임원택 읍장(신복읍), 이수홍 회장(대한노회 춘천시지회)의 축사, 선수단 대표 선서, 서홍석 경기위원장의 대회규정 설명, 내빈 시구행사가 있었다.

춘천시 윤덕구 체육과장, 강원CBS 하근찬 본부장, 춘천북부노인복지관 박재호 관장, 기하성 전국장로연합회 우상종 장로, 순복음춘천교회 장로회장 조돈산 장로, 체육선교회장 박명관 장로 등이 참석하였다.

이수형 목사는 개회사에서 “지역사회와 어르신들을 섬기는 사랑나눔 실천과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체육활동으로 행복하

고, 활력 넘치는 삶을 위하여 지난 해에 이어서 제2회 순복음춘천교회기 춘천시민 초청 게이트볼대회를 개최하였다. 게이트볼 대회가 춘천의 대표적인 대회로 지역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며, 본 대회 참가선수 모두가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는 축제의 한마당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회장 외부에서는 순복음춘천교회 교구가 간식을, 총여선교회는 맛있는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춘천북부노인복지관은 핫팩을 나누어 주면서 전도의 장을 마련하였다.

순복음춘천교회는 춘천시민 초청 탁구대회, 사랑행복축제, 택시데이, 사랑의 무료 진료, 문화예술축제, 해민사랑의 집(무료 급식), 지역교회 및 불우 이웃 사랑의 쌀 전달, 하나원 및 군경할 섬김, 사랑행복축제 수익금 및 물품 춘천시 전달, 지역 체육대회 섬김, 춘천북부노인복지관을 통한 지역 섬김, 지역교회와 함께하는 전도사역 등 다양하게 지역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있다.

GOODTV ‘헤브리콰이어’ 창단연주회 23일 개최



GOODTV 헤브리콰이어(천상의합창단) 창단연주회가 오는 23일 오후6시 사랑의교회 사랑아트채플에서 열린다.

“천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 감사” Heavenly Choir(헤브리콰이어)는 2018년 3월 GOODTV 기독교복음방송과 함께 복음전파 사역의 일환으로 창단됐다. 이들은 아름다운 하모니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혼성 찬양사역 합창단으로 영혼의 찬양을 통해 선교와 복음 전파를 감당하고 있다.창단연주회는 주님과 함께, I Love you

Lord 등의 찬양을 시작으로 민요 찬양, 영광의 찬양을 드리게 된다. 특별히 서울예술신학교 선교 무용팀과 찬양사역자 이광찬 목사가 출연해 한층 더 풍성한 찬양의 은혜를 나눌 예정이다.

헤브리콰이어 박은정 단장은 “합창단원 모두가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하는 하나의 목적을 갖고 있다”며 “특별한 사명을 갖고 있는 헤브리콰이어 합창단이 하나님께 열거주시는 기회로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번 GOODTV 헤브리콰이어의 아름다운 찬양연주회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다.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추수 감사

꿈의교회

DREAMS COME TRUE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www.mokpodream.org

2019년 2명 이상 전도하는 성도가 되자..

담임목사 이 요셉

예배안내

주일 1부예배(일) 오전 7시30분

주일 3부예배(일) 오전 11시

찬양예배(일) 저녁 7시30분

삼일밤예배(수) 저녁 7시30분

금요철야예배(금) 저녁9시

새벽기도회 새벽 5시

오후 기도회 오후 3시 / 저녁기도회 저녁 9시 / 철야기도회 새벽 0시30분

주소 : 전남 목포시 산정로322-3(연산동) 전화/061-277-0496

차량운행 : BUS 3번, 60번, 61번, 600번

• 요한계시록 7장 강해(49)

대환란을 왜 7년으로 보는가? (3)

(지나호 이어서...)

13절) 그때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여 나에게 말하기를 “흰 옷을 입은 이 사람들이 누구이며 그들은 어디서 왔느냐?” 하기에 14절) 내가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자기들의 옷을 씻어 어린양의 피로 희게 하였느니라.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앞으로 뵈일, 즉 흰 옷을 입은 자들의 정체를 다 풀어주었습니다. 이는 그가 믿음으로 먼저 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은 흰 옷을 입은 자들보다 먼저 신앙수준이 그 이상으로 올라서서 이 모든 것을 겪은 것과 같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지식으로 증거한 것이 아니라 확실히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있는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가 14절에 말하기를 ‘이들은 자기들의 옷을 씻어 어린양의 피로 희게 됐다’고 알려주는 것 자체가 장로 자신의 간단한 지식으로나 이론으로 알고 있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24장로의 자리에 들어가려면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실상으로 아주 확실히 받아가지고 있어야 뵈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14절 본문의 ‘대환란’은 마24:21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던 대환란’을 가리킵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난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각 민족과 나라마다 빼어난 환난이 있어 왔으나 본문의 ‘대환란’은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던 최고의 환란(마 24:21)으로서 7년 환란을 말씀하고 그 환란이 끝난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말씀했습니다(마24:29-31).

그러나 계시록을 해석하는 몇몇 분들이 본문 14절의 ‘대환란’을 해석할 때 폼수를 써서 속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7년 환란이 대환란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7년 환란 중에 전 3년 반은 환란이고 후 3년 반은 잔짜로 고통받는 대환란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마24:21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환란이 후 3년 반을 말씀하신 것인가요, 7년 환란을 말씀하신 것인가요? 주님은 7년 환란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성도들이 받는 환란은 전 3년 반이 됩니다. 계시록의 한 마디 한마디가 영혼을 살리고 죽이는 일인데 장로교 함동축의 저명한 목사



장한국 목사
주사랑교회 담임
예장전리총회 총회장

들이 그와 같이 해석해 버려서 계시록을 깨닫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분들이 해석한대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흰 옷을 입은 무리가 통과한 대환란은
마24:21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던 대환란 즉 7년 환란을 가리키고, 구체적으로 그 기간은 후 3년 반이 아니라 전 3년 반 기간 동안 환란을 받다가 죽임을 당한 후 흰 옷을 입게 된 것을 말합니다.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 ‘자기들의 옷을 씻어 어린양의 피로 희게 하였다’는 말씀은 자기들의 죄가 어린양의 피로 씻어 깨끗이 희게 되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본문 구절에서도 잘 알 수 있듯이 ‘옷이 희게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이 단 12:10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란을 주시는 이유는 그 환란을 통해서 고통 중에 회고 정결케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환란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미련이 싹 빠지고 “주님이 원하시면 제 목을 드립니다.” 하는 제물신앙으로 세워지는 것이 곧 회개 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희게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에 의해서 순교 제물로 바쳐질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지 환란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원문성경 스테판 헬라어 성경에서도 이와 똑같은 해석이 나옵니다.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으며 그의 성전에서 그를 받듯 섬기고,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그를 가운데 거하시리라. 본문 15절은 9절의 흰 옷을 입은 큰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늘나라 보좌 앞과 어린양 앞에서 찬송하는 그 상태에서 계속 진행되는 내용으로서 17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흰 옷을 입은 무리는 순교자들이요, 그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영광을 받고 찬송하는 광경입니다.

그러나 계시록을 상고하고 깨닫는 분들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

요? 그분들의 해석에 의하면 본문의 ‘밤낮 섬기고’를 근거로 흰 옷을 입은 큰 무리가 있는 장소는 하늘나라가 아니라 땅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밤과 낮이 어디에서 나타나는 현상인가? 바로 이 땅에 마련된 예비처에서 밤과 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흰 옷을 입은 무리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17절에 어린양 예수님이 예비처에서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그들이 굵주리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생수의 샘들로 인도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늘나라에는 밤과 낮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또 목자인 예수님이 교회에서 하셨듯이 예비처에서도 똑같이 목자가 되어서 예비처 성도들을 양육하고 이끌어 가십니다. 예비처에 있는 성도들의 목자는 어느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흰 옷을 입은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밤낮 섬기는 그 장소는 앞의 9절에 ‘보좌 앞과 어린양 앞’ 즉 하늘나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문맥적인 순서대로 읽고 깨달아야 합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만 떼어서 임의대로 해석해 버리면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데로 빠져서 오류가 발생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본문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앞의 9절로부터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본문에 ‘밤낮 섬기고’의 뜻은 밤과 낮의 현상을 말씀한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항상’, ‘끊임없이’의 뜻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흰 옷을 입은 무리들이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받듯, 즉 끊임없이 섬기고, 어린양 예수님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생수의 샘들로 인도하시고 굵주리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흰 옷을 입은 무리가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받아 누리며 사는 중에 생명과를 먹으면서 계속 힘을 얻고 새로워지듯이 그들의 영광이 계속 새로워지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더해지는 역사를 말한 것입니다.

“내가 보나, 불로 뒤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숫자에 대하여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들을 가지고 유리 바다 위에 섰더라.” (계15:2) 또 계시록을 해석하는 모든 목사님들이 계15:2에 ‘불로 뒤섞인 유리 바다’를 예비처라고 풀어놓았습니다. 그

분들은 후 3년 반에 하나님이나 불신앙적인 그의 백성들에게 진노를 쏟아붓는 것이 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진노의 역사에서 구별된 예비처가 유리 바다이며 그 불로 뒤섞인 유리 바다 안에서 이긴 자들이 보호·양육 받으면서 기뻐 찬양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유리 바다가 하늘에 있나요, 땅에 있나요? 계4:6에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 있고,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15:2의 유리 바다가 있는 곳은 땅의 예비처가 아닌 하늘나라입니다. 또 유리 바다 위에서 있는 이긴 자들도 하늘에 올라가 있는 자들임을 가리킵니다. 이긴 자들, 즉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숫자를 받지 않고 이긴 자는 누구인가요? 이와 관련된 말씀이 계20:4에 나옵니다.

보좌들 위에 앉은 자들에게 심판하는 권세가 주어졌고, 그들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베임을 당한 사람들로서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순교당한 후 살아나서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으니, 이것이 하늘의 가장 큰 영광이요, 그들이 가장 복된 자들이 되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일천 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짐승’과 ‘그의 형상’은 계시록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며 그를 경배하지 않으면 모두 죽임을 당한다고 말씀했습니다(계13:15).

결론적으로 계15:2의 ‘유리 바다 같은 곳’은 땅의 예비처가 아니라 하늘나라이며 이긴 자들이 어떻게 그곳 하늘나라에 올 수 있었는가? 이는 그들이 전 3년 반 동안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의 표를 받지 않음으로써 순교를 통해서 유리 바다 같은 곳 하늘나라에 이른 것입니다. 또 불로 섞인 유리 바다의 ‘불’은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불을 뜻합니다.

16절) 그들이 다시는 굵주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며, 태양이나 어떤 열기도 그들 위에 내리쬘지 못할 것이라. 17절) 이는 그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양이 그들을 먹이시고 생수의 샘들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고 하더라.

본문 16~17절은 앞의 9절 말씀에 귀속된 말씀입니다. 흰 옷을 입은 무

리들은 이미 하늘에서 영광을 받은 부활의 몸으로서, 어린양 예수님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먹이시고 생수의 샘들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즉 흰 옷을 입은 순교한 자들이 하늘나라에서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아서 누릴 때 하늘나라에 있는 생명수 강에 의해서 맺어지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고 생명수를 마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오늘날 주님이 교회에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나무의 과실과 생수를 먹고 마시게 하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영을 자라게 하기 위한 생수와 생명과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생수는 성령에 의해서 하늘에 속한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세wig는 역사요, 생명과는 예수님을 가리키므로 말씀으로, 진리로 영적인 양식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것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예비처입니다. 예비처에서 보호양육 받고 있는 사람들은 부활한 몸이 아니므로 지금 교회에서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먹이고 마시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늘나라에서 흰 옷을 입은 큰 무리들이 예전에 이 땅에서 굵주리고, 목마르고, 열기에 고통 받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린양 예수님이 흰 옷을 입은 무리들의 목자가 되어서 생명수 강이 흐르는 양편에 심은 생명나무가 달마다 내는 과실을 먹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흰 옷을 입은 자들이 하늘에서 이미 영광을 받고 있는 중에 그들의 영광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계속 새롭게 더해주시며 자라게 하시며 기쁘게 하시는 역사를 말합니다.

여기까지 계시록 7장은 끝나고 요한 계시록 8장 서두에서 일곱째 인과 일곱 나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어 나가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요한 계시록 8장 강해

1절) 어린양이 일곱째 봉인을 여실 때 하늘에 약 반 시간쯤 정적이 있더라. 본문 1절을 읽을 때 어린양이 여섯째 인까지 떼 한 후에 순서상으로 일곱째 인을 떼시는 것으로 파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요한계시록을 깨닫는 데에 혼란과 오류에 빠져서 계시록이 닫히고 맙니다. 계시록 6장에서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을 떼는 것은 환란의 전체 기간인 7년 동안 될 사건의 내용을 전부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첫째 인부터 다섯째 인까지 떼는 것은 환란이 시작해서 삼 년 반 안에 될 사건을 예언한 것이고 여섯째 인을 떼는 것은 후 3년 반 안에 될 사건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7년 환란이 끝난 것입니다.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목사코너 -240-

주인 뜻 알면서도 준비치 않으면

주사랑교회 장한국 목사
예장전리 총회장, CJTN TV 부이사장

눅12:42-48) 오 말씀은 제 때에 양식 나눠 주는 것과 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는 자의 그 어려움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제 때에 양식 나눠 주는 청지기가 누구 이겠느냐? 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양식은 성경 상의 말씀이요, 이 성경은 하루를 기준으로 세 때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아침 식사, 즉 조반은 요21:12에서 주님이 친히 솥불에 생선을 굽고 빵을 준비하여 직접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이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흘려 구원하심의 복음을 가리킵니다.

또 오찬은 마22:4 주님이 그분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았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신 것 즉 은 해복음의 말씀입니다. 복을 받는 자들에게 성령 부으심으로 영생의 열매 맺게 하심, 또한 각종 은사, 능력 등을 주시어 더욱 열매맺는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는 주님을 가리킵니다. 마지막 저녁은 눅22:13-15의 유월절 양과 빵을 먹는 것입니다. 이 저녁은 주님과 12사도들이 함께 먹었지요. 그리고 곧 주님은 붙잡혀 십자가에 대속제물로 바쳐졌고, 제자들은 그 주님 뒤를 따라 순교제물로 바쳐졌습니다.

어두움의 권세의 때에 믿음의 정절을 지키므로써 순교케 해주시는 것, 즉 영광의 복음의 말씀이 곧 저녁이요, 영광의 복음의 광채(고후4:4)와 또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고후4:6)이 곧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이요, 또 우리가 순교 후 받게 될 첫째 부활의 영광을 사모하여 그에 이르는 말씀을 먹는 자와 오늘 이때에 맞는 말씀을 먹는 복된 자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와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스릴 자로 세우리라 하셨지요. 이 주인 오심은 주 재림이요 그대 영광은 복음으로 산자니, 즉 이미 큰 환난날에 순교한자들은 그리스도 왕국(천년왕국)에 왕들로 세워 다스리게 하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 종이 속으로 ‘내 주님이 오시는 것이 늦어지는도다’ 하면서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한다 했습디다. 지금까지 기다리던 주 재림이 없고 환란도 때가 오래 지났는데도 일어나지 않는다하여 자기 생전에 주님 재림은 없다하고 마음 속으로 그 종의 중심이 바뀌게 뵈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이 속히 재림하신다고 증거하는 종들을 비방,정죄하고 핍박하기 시작하면서 때에 맞지 않는 구원의 복음으로만 증거 하면서 마치 포도주에 취한자 같이 되리라. 이들은 주 재림을 맞이 못하게 되며 그런즉 환난날에 불신자같이 배도 타락하게 될 것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결론은 자기 주인의 뜻을 알면서도 준비치 않으면 매를 많이 맞으리라. 독육이 몇시에 침투하겠다면 밤잠 안자고 집을 지키듯이 주재림에 대해서도 이미 그 때의 징조를 다 말씀해 주셨고(마24장,단2장등) 이로써 반드시 어린양의 아내가 그 자신을 흰 새마포즉 순교신앙으로 예비하였으리라. 그러나 이 뜻을 알면서도 앞서의 종과같이 끝까지 믿지 않고 주재림의 예언의 말씀과 영광의 복음을 버린자는 매를 많이 맞으리라. 그런즉 배도 타락하여 하나님의 진노 심판 받으리라. 또 음부의 불꽃같은데로 떨어져 고통 받으리라.

축 2019 추수감사



담임 이규필 목사
(홍신대학 이사장)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천교회

주일 예배 안내

주일대예배 오전 11시 주일오후예배 오후 2시
수요기도회 오후 7시30분
금요심야기도회 오후 9시구역예배(금) 각 구역별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153길 94
☎02)854-1326



담임 전예희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광교회

주일 예배 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인천시 부평구 부개1동 396-79
☎ (032)505-3351



담임 조영만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시온교회

주일 예배 안내

주일오전 11시 30분
주일오후 2시 30분
수요예배 오후 8시 30분
금요예배 오후 8시 30분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39-2 (현대프라자 301호)
☎070-7501-2584 H.P 010-5355-2584
다음카페 http://cafe.daum.net/choym.com



담임 서동기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망교회

주일 예배 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3시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467번지 현대아이파크 A상가 2층
H.P 010-3342-7302



담임 강대일 목사
(합동교수 총회장)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안교회

주일 예배 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서울시 중랑구 상봉 1동 40-5
☎(02)433-0291(교)



담임 임상국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천복복지교회

주일 예배 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1시 30분
수요일 오후 7시 30분

대구시 북구 동변동 U선수촌 213-703호
☎ (053)741-7732, 070-4220-7735



담임 이재석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풍성한교회

주일 예배 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경기도 시흥시 뱀배장터로4, 3층(신천동)
H.P 010-5660-8575



담임 고성규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다니엘교회

주일 예배 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경기도 시흥시 검바위로 52-1
☎(031)312-2613



담임 장승현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안교회

주일 예배 안내

주일낮예배 오전 11:00
주일 오후 오후 2:00
삼일예배 오후 7:30

충남 당진시 송악읍 봉북로 62-5(봉곡리 55-6)
☎ (041)356-0644



담임 사금열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심교회

주일 예배 안내

주일 1부예배 오전 10:30
주일 2부예배 오후 1:30
수요 밤 예배 오후 7:00
금요반기도회 오후 9:00
심야작정기도회 오후 9:00(365일)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14-4
H.P 010-5225-1253



담임 장한국 목사
(전리총회장)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사랑교회

주일 예배 안내

주일대예배 오전 11시
주일오후예배 오후 2시
수요예배 오후 7시30
새벽예배 새벽 5시
금요침례회 밤 9시

경기도 의왕시 계원대학로10, 701호(내손동)
홈페이지 http://jicn.kr ☎031)424-7621, H.P 010-4436-7060



담임 이정민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서하나님의교회

주일 예배 안내

주일 예배 오전 11:00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오후 8:00
금요 기도회오후 9:00
2시 기도회매일(월~토)오후 2:00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127-3호
☎(02)465-4090

| 여름 타작마당 11 |

잘못된 회개의 결과(2)

영적으로 여름에 목욕을 자주하라! 잘못된 회개 일곱가지?

〈지나호에 이어서...〉

㉔ **아간의 회개는 잘못되었다.** (수 7:20-21)

성경에 여러코 성읍이 무너지는 것은 이 세상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그림자이다. 이 세상인 바빌론이 무너지는 모습이다. 여러코 성읍이 6일 동안 매일 새벽마다 한바퀴씩 그 여러코 성벽을 돌았다. 그리고 일곱 켤배 새벽에는 일곱 바퀴를 돌면서 제사장들이 일제히 나팔을 불었다. 그리고 일제히 합성을 질렀다. 그때 여러코 성읍은 힘없이 그 강한 성이 무너졌다. 그 성읍 백성들은 다 멸망당하고 만다. 여기서 6일째 여러코 성읍을 돌았다는 것은? 6천년의 역사를 말한다. 또한 6자를 풀어보면 다 말할 수자이다. 6자로는 성공할 수 없다. 그런데 여기서 아간이 훔친 물건이 세가지가 있다. 훔친 것 세가지의 의미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느냐?

① **아름다운 바빌론제 옷 한 벌이다.**

이 옷은 외투를 가리킨다. 또한 세마포를 뜻한다. 이것은 또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말해준다. 계 19:8=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였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 고 했다. 그러므로 나나 여러분이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였는데, 의로운 사람은 남의 것을 탐내지 않는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 옳은 행실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을 원하신다. 그런데 남의 외투인 남의 의로운 행실을 훔쳐서 어떻게 하였다는건가? 그래서서 절대 안 되는 것이다. 아간은 남의 외투 한 벌을 훔쳐 와서 아무리 벗을 부리고, 그 외투를 입고 나돌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바라보시지 않으신다. 오직 하나님은 자신의 행실로 나오시기를 원하신다.

② **아간이 훔친 물건 중 두 번째는 은이다.**

은=[구원을 말한다.] 이는 순결을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을 가리킨다. 그러나 남의 것을 훔친 것으로는 자신의 구원의 증표가 될 수 없다. 순결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내 몸이 아무리 금으로 된 십자가 뺨지를 달고 다닌다 해도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 성경 찬송을 열구리에 끼고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 또한 구원의 표인 은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소용이 없다. 은은 말할 자들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훔친 것으로는 안되는 것이다.

1) 옷 준비하라.
아주 시원한 좋은 옷을 준비해야 한다.

여름에 입는 옷은 가능한 모시나 삼베 옷을 입어야 한다. 그래야 서늘하고 위생적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영적으로 깊은 뜻을 말해 주고 있다. 베옷은 여름에 입는 옷이다. 그런데 굵은 베옷이다. 굵은 베옷은 종말 때 입는 옷을 가리킨다.

① 계 11:3=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러면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일천이백육십일을 예언하리라. 고 했다. 그 예언은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두 증인의 옷 베옷을 준비해야 한다. 이는 참으로 좋은 옷이다.

② 욥 3:6=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이르자, 왕이 그의 보좌에서 일어나 그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았더라. 여기서 왕이 왕복을 벗었다고 했다. 왕이 일어나 왕복을 벗었다는 것은 은혜 시대에 받은 옷을 벗었다. 그리고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었다. 굵은 베옷을 갈아입었다는 것은 마지막 환난을 통과 할 수 있는 옷을 갈아입었다는 말씀이다. 은혜의 옷이 아닌 환난을 준비한 굵은 베옷을 갈아입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

③ 창 37:34= '야곱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그의 허리에 두르고, 자기 아들을 위하여 여러 날을 애도하더라. 고 했다. 이것은 바로 요셉이 죽었을 때 베옷을 허리에 두른 것입니다. 야곱은 옷을 준비해 놓았다가 그렇게 슬피 울었다. 그런데 요셉은 후에 너무도 잘 되었다. 영원히 보지 못할 아들을 본 것이다. 마지막 최후에 행복을 누리게 된다. 나와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풀어보면 저 이집트의 파라오 왕도 한 표상으로, 한 각을 때보면 파라오도 하나님의 모형으로 나올 때도 있다. 그러니까 요셉 당시의 파라오는 하나님의 표상으로 볼 수 있다. 파라오가 야곱에게 하는 말이, 그대는 어떻게 이처럼 아들을 잘 두셨는가? 한다. 이러한 대화를 주고받는 것을 영적으로 풀어보면 놀랍다. 반드시 그렇다는 말은 아니다.

그래서 파라오 왕이 요셉에게 인장 가락지를 끼워주고, 세마포 옷을 입혀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의 복임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임금이 내리신 축복은 영적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한다. 이것은 바로 원위치로 돌아온 것이다. 거듭 말하면 요셉 당시에 파라오는 하나님으로 등장할 때가 있고, 메시아로도 볼 수 있고, 임금으로도 상징된다. 그러니까 파라오가 요셉에게 인장 가락지를 손



정기남 목사
편집인

가락에 끼워주고, 세마포 옷을 준다. 그리고 수레도 준다. 모든 권한을 요셉에게 다 일임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임금으로도 볼 수 있다.

또한 다윗 왕도 마찬가지이다. 다윗왕도 아주 좋다. 메시아의 표상도 될 수 있고, 예수의 표상도 될 수 있다. 그러나 다윗왕이 밋세파의 아내와 같이 간통하는 장면은 아주 나쁘게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것을 다른 한편으로 영적으로 보면 아주 좋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다. 이처럼 성경은 여러 각도에서 풀려지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어떻게 간통을 저지른 7계명을 저지른 다윗에게서 솔로몬이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토록 잘못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자손 가운데 솔로몬이 나오고, 그리고 그 맥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일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성경은 육적인 것보다는 영적으로 바로 풀고 알아야 한다는 말씀이다. 할렐루야!

④ 시 35:13에 보면 [다윗의 옷이 굵은 베옷이었다. 그가 기도할 때에 굵은 베옷을 입었다. 다윗은 이렇게 준비가 되어있고, 법을 아는 자이다. 다윗은 메시아의 표상도 되지만, 예수님의 표상도 될 수 있다는 말씀이다.

⑤ 단 3:21에서 누가 등장하는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키 이 세사람이 나오는데 이들이 옷을 입었다. 겔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들을 입은 채로 묶여서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가운데에 던져졌더라. 고 했다. 그러나 그들은 머리털 하나도 그을리지도 않고, 옷을 입은 채 그대로 살아서 서 있더라는 것이다. 특히 여기서도 옷을 입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이 말씀은 우리를 바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비밀을 보여 주시는 것이다. 그들이 입은 옷은 겔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들이었다. 이 옷들을 입고 용광로 속에 들어간 것이다. 할렐루야!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III.성막 영광과 구원 서정의 5단계 -33-

실존의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던 선지자들

〈지나호에 이어서...〉

(3) 하나님은 인격(人格)을 가진 실체라는 원리

실존의 하나님은 인격자이시므로 모든 것을 다, ① 보시고(욥 11:11-14), ② 들으시고(시 17:1, 6), ③ 아시고(히 4:12, 시 139:4), ④ 감찰하시고(시 11:5, 창 16:13), ⑤ 판단(심판)하고 계신다(롬 2:1-3, 삼상 2:3). 영성운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운동이다. 즉 실존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면전(Coram Deo)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져서, 그분처럼 온전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믿음생활을 말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 41:10) ‘여호와와 손이 짧아 구원치 못 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 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사 59:1-2)

(4)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원리

현재의 상황은 우리가 행한 것의 결과이다.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출 32:34)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롬 2:6)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와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없드려질 것이라' (민 14:26-29)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라도' (잠 11:31)

2) 반드시 성령세례를 받으라 (요 3:1-10).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성품인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원상회복)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다.

(1)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라 (접붙임, 요 14:20, 롬 11:17-20, 왕하 18:6).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한다. 즉 신랑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살아가는 것이 성화의 단계이다. 신랑인 예수와 접붙임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 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사 59:1-2)

(2) 하나님을 만나라(열 처녀 비유, 마 25:10, 계 19:9). 실존의 하나님을 만나면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나타난다. ① 주와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②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진다. ③ 자유함과 당당함이 생긴다. ④ 근심과 걱정이 없어지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며 범사에 감사가 온다. 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자 된다. ⑥ 가정이 행복해지고 형통의 역사가 따른다. ⑦ 천국을 맛보며 기쁨으로 살게 된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계 19:9)

(3)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같은 길을 가야 한다.



송택규 박사
JTNTV 주필

아모스 3장 3절에서는 '두 사람이 의합(重合)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말씀하시고, 에베소서 2장 13-18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서로 하나님과 결합하여 한 몸이 이루어질 때 동행하며 진정한 평안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동행하려면, ① 방향이 같아야 한다. ② 목적지가 같아야 한다. ③ 가는 길이 같아야 한다. ④ 속도가 같아야 한다. ⑤ 서로 마음이 맞아야 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 22:37-40)

'여호와와 손이 짧아 구원치 못 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 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사 59:1-2)

(4) 믿음을 단순화 하라. 예수와 연합되는 것은 신랑 예수와 신부인 나와 결합되는 것을 의미한다. 결혼 하면 처녀 총각 때 만나던 사람들을 다 정리하고 한 사람만 바라보고 동심일체(同心一體) 되어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며 살아간다. 진리는 단순한 것이다. 진리는 이론이나 학설이 아니고 그저 진리일 따름이다. 진리를 복잡하게 하지 말라. 진리는 그저 진리로 믿어라.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인터넷에서 위의 강의를 다 보실 수 있음(http://jtntv.kr http://cpj.kr)

축 2019 추수감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일에배안내

주일오전예배 오전 11시

視務牧師 서명범 同事牧師 지복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성5길 42 원앙마을 부영아파트 116동 206호
H.P 010-8268-0091, 010-3710-9119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일에배안내

주일오전 11시 오후 2시
수요일 7시, 금요일 저녁 7시
화요일 2시 집회

담임 김선우 목사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10-964번지
H.P 010-3499-2441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일에배안내

주일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주일밤 오후 7시 30분
수요일예배 오후 7시 30분

총남 홍성근 목사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내포로 146번길 36-8
☎(041)634-0441(사무실) 633-6146(목양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일에배안내

주일오전 10시30분 오후 2시
새벽예배 6시
수요일예배 저녁 7시30분
금요일예배 저녁 7시30분

담임 배영자 목사

서울시 금천구 독산로24길 11(2층)시흥동
H.P 010-9600-5028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주일에배안내

주일 1부 오전 11시
주일 2부 오후 2시
수요일예배 오후 7시

담임 관완근 목사

충남 공주시 봉황동 96번지
☎(041)854-3676 H.P 010-4320-1507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일에배안내

주일 오전 11:00
오후 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기도회 저녁 9:00

담임 이혜진 목사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송내동 383-21
☎(032)667-7147 H.P 010-3287-1500

탈퇴공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주님의 사랑교회는 사정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백성) 평서노회를
탈퇴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담임목사 서사라 및 성도 일동

장기요양기관(행복의집)



가족처럼
어르신(환자)을 모십니다.
(등급판정-1급 ~ 3급자 환영)

원장 박순중 목사
www.1004tv.net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033)541-0687 H.P 010-7580-1004

강릉산성그리스도의교회



주일에배안내

주일 오전 10시 30분
오후 1시
오후 1시 30분
오후 2시

담임 최찬환 목사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오이골말길58-20
☎ (033)655-0691, 0692 H.P 010-6409-0091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일에배안내

1부 주일 오전 11:00
2부 오후 1:30
주일저녁 오후 7:00

담임 정기환 목사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75번길 30-5
☎(032)321-9109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일에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한경총 사무총장
사도명성신학신학원 원장

서울시 구로구 개봉3동 370-40
☎(02)583-1955 H.P 010-7585-1955

조에 교정선교회



조에/생명살리는 교정선교
청송교도소
청주교도소
춘천교도소
직훈(직업훈련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능곡로 36(2/3), 3동 101호(안양동, 우성아파트)
☎(070)8632-6993 H.P 010-3035-5704

CJTN 지저스타임즈 창간 14주년 감사예배

아프리카 선교를 목표로 르완다에 CJTN 방송신문 설립



지저스타임즈 CJTN 방송은 지난 25일 (금) 오전 11시 인천시 서구 장고개로 소재 영광교회 본당에서 본사 창간 14주년을 기념 감사예배를 드리고, 신임 이사 및 아프리카 지역 르완다연합대학 총장 이창기 박사, 르완다음악대학 학장 최사라 박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등 화기애애한 교제가 이루어졌다.

예배에 앞서 상임이사 김선우 목사의 은혜로운 찬양 인도로 축제의 자리로 무르익는 가운데 사무총장 광영민 목사의 진행으로 감사예배가 시작되어 부이사장 박정균 목사(예장웨신 총회장)가 기도를, 꾸미오리 김창숙 목사 찬양단의 위십에

이어 이사장 허창범 목사(웨신 직전총회장)는“하나님의 파수꾼 지저스타임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사장 허 목사는 겔 3:1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지저스타임즈 CJTN 방송은 이 시대 한국교회를 지키고 진리를 수호하며 정의와 공의와 사랑을 전파하라는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세워진 것을 믿는다’며 축하했다.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내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처럼 결단하며 굳게 진리를 붙들고 전파하는 파수꾼의 역할 신문방송이 되기를 기원했다.

방송선교를 위한 헌금시간을 갖고 부이사장 박정균 목사는 삼행시를 지어 웨신총회장 박정균 목사, 이사장 허창범 목사의 이름으로 대표이사 정기남 목사, 부국장 성순희 기자에게 공로패를 증정하고, 금일봉 및 따뜻한 이불을 선물했다.

이어 부이사장 박정균 목사, 노설위원 자문 최순길 목사가 축하했으며, 르완다연합대학 이창기 총장의 권면에 이어 이사장 허창범 목사는 르완다연합대학 총장 이창기 박사를 국제부 총본부장에 르완다음악대학 학장 최사라 박사를 르완다 신문방송 대표로, 운영이사 박창성 목사(순복음하늘샘교회), 후원이사 이영신

집사(전,시흥시의회 부의장/현 한국복지발전협의회 회장), 윤석희 목사(웨신호남노회 서기)를 운영이사로, 차준환 목사를 취재기자로 8명을 사령했다.

이날 중식은 영광교회 권사회에서 정성을 다하여 마련되어 이구동성으로 맛있게 먹었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어 이사장 허창범 목사 사회, 운영이사 배영자 목사(한중노회 회의록서기)의

기도로 이사회를 개회하고 원활한 신문방송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는 개인의 온라인계좌를 신문사 계좌에 등록하기로 결의하고 안전토의를 거치는 가운데 운영이사 윤석희 목사를 본사 사무국장으로 사령하고 업무를 담당할 방침이다. 아울러 합심하여 기도한 후 운영이사 정사라 목사의 폐회 기도로 마쳤다.

한편 권사회와 남전도회에서 강단의

꽃을 장식하고 계단 층층에 국화를 장식하는 등 봉사에 나섰다. 또한 이사장 허창범 목사, 부이사장 박정균 목사, 웨신 부총회장 김현수 목사, 부총회장 마순덕 목사 등이 화환을, 부이사장 정대성 목사 고급타월 증정, 한국의전협동조합 회장 류재승 집사, 조예교전선교회 대표이사 유순옥 목사, 마르티스부흥협의회 대표회장 고승권 목사 등이 화분을 증정했다.



동문교회연합 목사위임, 임직예배

담임 고귀남 목사 위임



하나님 중심, 성경중심, 교회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동문교회(담임 고귀남 목사) 성도들이 지난 10일(주일) ‘교회연합 목사위임, 임직예배’를 본당에서 드렸다.

노회장 신상원 목사(빌립보교회 담임)의 인도로 진행된 1부 교회연합 목사위임 임직예배에서 증경노회장 나정기 목사(이레교회 담임)가 대표기도를, 증경노회장 전용성 목사(LA선교교회 담임)가 성경봉독(룻기 1장 16-18절)을 한 후 노회장 신상원 목사가 ‘어머니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신 목사는 “시아머니 나오미는 모든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깨닫고 결단하여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 그의 며느리들을 돌려보내기 위해 그들과 대화를 나눈다. 여기서 며느리 룯은 끝까지 시아머니 나오미를 따르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며느리 룯이 그저 인간적인 효성의 발로로만 시아머니 나오미를 쫓아가겠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신앙의 결단

이 있었다. 왜냐하면 16절에서 ‘룯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음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룯의 고백은 명백히 하나님 이전 역사의 주권자이심과 이스라엘은 선민임을 깨닫고 반드시 그 선민의 대열에 동참하려는 의지의 고백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이방 여인으로서, 더욱이 고난당하는 시아머니 나오미를 보면서 도저히 갖기 힘든 놀라운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신앙인을 이방인 가운데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또 한번 발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위임국장 신상원 목사가 위임받는 고귀남 목사와 교우들로부터 서약을 받고 난 후 공포를 하고 위임패를 수여했다.

당회장 고귀남 목사의 집례로 열린 2



부 안수집사 취임 예배에서 임직자로부터 서약을 받고 안수기도, 약속세 및 공포를 한 후 권사 취임자로부터 서약을 받고 난 후 공포했다.

정태임 집사가 축가를 부른 후 증경노회장 강평근 목사(부활교회 담임)가 권면을, 증경노회장 정갑식 목사(해돋는교회 담임)가 축사를 한 뒤 임직자가 교회에 기념품을 증정한 후 증경노회장 박재웅 목사(유엔아이장로교회 담임)의 축도로 마쳤다.

이정현 기자 153@christianvision.net

추 2019 추수감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꿈너머꿈교회

천국환송 절차와 실제

“너희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전6:19-20)

성도된 자들은 죽음의 몸까지도 영광 돌려야 할 책임이 있다. 또한 의인으로서 성도다운 거룩한 죽음을 맞이할 권리가 있다. 가족들은 (고인)자는 이를 하나님 보좌로 보내드리는 손색없는 성경적 예식이 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마지막을 하나님 기뻐하시느 모습으로 마무리 정리를 잘 해야한다. 이에 천국 가는 하늘 길에 대한 유가족과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천국으로 향하는 선교와 기독교적 진리를 담고 있는 예식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담임목사 김한수

꿈너머꿈교회

교회명 : 대한예수교장로회 꿈너머꿈교회 주소 : (445-320)동탄신도시(경기도 화성시) 능동 588-3

주일예배

1부	아침예배	오전 8:00
2부	주일대예배	오전 11:00
3부	오후예배	오후 3:00

* 마중 마지막 주 오후예배는 장안속3예배로 드림.

다음세대 주일예배

아동부 예배	오전 9:00	3층 대예배실
젊은이(YG) 예배	오후 1:30	3층 소예배실

* YG: Youth Group

평일예배

새벽예배	월~금	오전 5:00
수요예배	수요일	오후 7:30
금요일예배	금요일	오후 9:00
학생예배	토요일	오후 2:00

기타모임

Job's(아들부)	화요일 오후 6:00	2층 교육실
하차 교백	주일 오전 9:30	2층 교육실

이사야 1장 강해 (5) A Study on the Book of Isaiah

〈지난호 이어서〉

【신학 포인트】

본장은 이사야서 전체를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 주는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이사야는 언제나 하나님의 책망과 구원의 약속 그리고 공의로운 심판을 반복적으로 나타내는데 그 속에서 면면히 흐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다. 비록 유다가 그들의 반복된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 분명한 데도 하나님은 또 한 번의 회개를 촉구하고 계신다.

이것이 바로 유다, 나아가 이스라엘 전체를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엿보이는 말씀인 것이다. 유다의 죄악은 종교적인 형식주의에서 비롯되었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언동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며 변함없는 사랑으로 유다를 돌보고 계신다.

이사야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당연한 도리는 바로 회개임을 역설하고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에게 임한 것은 더 없는 그분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것이며, 여기에는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는 길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심판으로 바뀌기 전에 유다의 회개가 있어야 하며, 그럴 때만이 유다의 구원은 보장되는 것이라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 본문이 주는 메시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양면적인 속성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는 언약의 성취를 예견해주는 것이며 나아가 유다를 향한 무한한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다. 비록 유다 백성들이 죄를 지어 바벨론이라는 강대국 아래 있지만 이것은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한 과정이며 죄를 회개하도록 만드는 방법이기도 하다.

1)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범죄할 때는 징계를 해서라도 바로 돌아오도록 하신다. 2) 하나님께서는 공평한 심판을 통해서 회개한 자들로 구속하시지만, 끝까지 돌아오

지 않는 자들은 멸망시키신다.

【제2장】여호와와 날에 될 일들

본장은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 특별히 ‘말일’, ‘여호와와 날’로 언급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사야는 말일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모든 나라 위해 군림하게 될 것이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상의 왕으로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실 것임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겸손히 살아가는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우상들과 우상 숭배자들, 특히 교만한 자들에게 임하여 그 모든 것들을 파괴하시기 때문이다. 유다가 저지른 모든 죄들이 우상으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많은 구절들이 나타나며, 이사야는 이러한 유다 백성들에게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내용 분해》

1. 말일에 성전을 중심으로 세워질 평화의 나라의 비전(1-5)
사 2:2 말일에 여호와와 전의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사 2:4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2. 남 유다 심판의 원인 제시와 여호와와 날의 심판경고(6-21), 3. 남 유다가 의지하는 대상들의 제거 경고와 여호와 영광 모독 책망(22-3:12) 사 2:22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생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신학 포인트】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거하는 것이긴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하나님 자신의 언약에 근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에 위배되는 일이 행해지는 곳에 하나님의 심판은 나타나게 마련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장소, 시대를 막론하고 인간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사야가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에 걸 맞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촉구한 것은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사실에서 충격을 받은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상 숭배나 강대국에 대한 의존, 그리고 교만 등을 일삼는 성민에게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앗수르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민족이기 때문에 멸망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 속에 어우러져 죄악을 일삼는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피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본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구체적으로 이방 나라의 멸망으로 결과되지만, 유다 백성들 편에서는 심판의 과정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호기가 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말일에 하나님께서 장차 유다가 의지하는 인생들을 모두 제하여 버리실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멸망당할 대상 중에는 복술자들과 우상을 만드는 장인들이 그 선두에 있을 만큼 종교적인 타락이 있었다. 또한 통치자들의 권위와 정통성이 사라지고 윤리성의 타락은 사회적인 혼란을 가중시키며, 결국은 유다의 멸망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뒤이어 특권을 남용하는 지도자들의 폭력적인 행사가 나타나고 이것은 모든 유다 백성들의 타락을 부채질하는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그것은 예수의 사역을 통해 나타내는데 즉, 예수께서는 인간의 죄성이 가미되어 만들어진 잘못된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가 담겨 있는 율법을 온전히 이해하고 따랐다는 것이다(참조, 마 5:17). 여호와와 심판의 날이 이르면 모든 허무한 것들이 멸망을 당하게 되고 교만한 것들이 낮아질 것이지만 홀로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사야의 선포는 유다 백성들이 의지해야 할 유일한 대상을 지적하고 있다.

◎ 본문이 주는 메시지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은 유다 백성들이 저지

김성립 목사

강의 제자신학원



르는 범죄와 앗수르의 교만한 행위가 결코 하나님의 공의로운 능력에 부합될 수 없는 가증한 짓임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앞당기는 행위는 성민이나 이방인들에게서 모두 없어져야 할 것임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결코 강대국의 힘이나 자신의 능력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모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즉 이스라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은 선지자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따를 때 구원으로 나타난다.

1) 성도들이 세속화되어 헛된 물질과 쾌락만을 추구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된다.

2) 성도들은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며 더욱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

【제3장】하나님의심판

본장의 초반부는 사 2:22의 말씀과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는데,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장차 유다가 의지하는 인생들을 모두 제하여 버리실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멸망당할 대상 중에는 복술자들과 우상을 만드는 장인들이 그 선두에 있을 만큼 종교적인 타락이 있었다. 또한 통치자들의 권위와 정통성이 사라지고 윤리성의 타락은 사회적인 혼란을 가중시키며, 결국은 유다의 멸망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뒤이어 특권을 남용하는 지도자들의 폭력적인 행사가 나타나고 이것은 모든 유다 백성들의 타락을 부채질하는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내용 분해》

1. 죄의 추궁자, 심판자로 등장하신 여호와와 남 유다 남부 상류층 심판 경고(3:13-4:1), 사 3:10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임이요 사 3:11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제3장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사도영성 신학(5)

하나님의 생명력을 깨닫는 사도들 순교를 각오한 사역

〈지난호 이어서〉

기독교 영성가들은 이 자아 혹은 영혼의 정화 및 초탈의 최상의 방법은 철저한 ‘자기 포기’(apatheia)와 ‘자기 부정’(self-negation)이라고 보았다.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否認)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마 16:24)고 하신 말씀은 우리의 영적 성장과 완성을 위한 온전한 정화와 초탈, 그리고 철저한 ‘자기 부정’과 ‘자기 포기’의 길을 제시한 말씀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정화의대상

자기를 버리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욕구를 버리는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욕구를 좇아 어떤 대상에 집착하면 그 욕구가 우리 마음 안에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그 욕구가 강하면 강할수록 차지하는 자리가 크고, 그 자리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자리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한편, 욕구의 해악은 다음과 같다.

① 욕구에 따라 사는 사역자는 항상 피로에 치져 있을 것이다. 욕구는 무엇든지 못

홍향표(요한) 목사

사도영성 아카데미 원장



마땅해하는 철부지 어린이와 같아서 아무리 채워주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를 졸라대면서 가만있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② 욕구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 마치 욕구라는 밧줄에 묶여 욕심의 밧줄을 돌리는 것과 같아서 전혀 쉬지 못하고 화대를 받고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이는 마치 욕심 많은 농부가 쟁기 맨 소를 괴롭히고 닦달하듯이 욕구에 묶인 마음도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다. 욕구를 많이 지니면 지닌 만큼 괴로움이 많고, 강하면 강한 만큼 마음의 괴로움도 크다는 말이다.

③ 욕구대로 살면 마음이 어두워져서 마음의 눈이 멀게 된다. 욕구에 사로잡힌 사역자는 당연히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며, 의지가 무너지고 이성이 흐려져서 제대로 판단을 할 수 없게 된다.

| 마약 범죄와의 전쟁(9) |

헤로인 중독성 마약이란?

〈지난호 이어서〉

물핀

진통력을 가진 아편식물 알카로이드이다. 진통, 현기증, 기분의 변화, 정신적 몽롱함과 같은 마비효과를 가지며 약리학적으로는 중추신경억제제, 의학적으로는 진통제, 지사제 등으로 사용된다. (약리작용), 물핀을 4시간마다 투여하면 24시간 이내에 신체적 의존이 생기고, 의존이 생긴 후 약물을 중단하면 금단 증상이 일어난다. 금단증상은 약을 중단한 지 12~18시간 이후에 시작되며 마지막 약 사용 후 48시간~72시간이 되면 절정에 달한다. 그러다가 금단한 지 5~10일이면 증상이 가라앉는다.

헤로인

하인리히 드레서 박사가 1889년 독일 바이엘사에게 개발한 것으로 노의 호흡중추를 억제한다. 강력한 진통제이며 의존성이 없는 약물로 개발해 모르핀의 금단증상을 경감시켰다. 그러나 12년 뒤 헤로인이 모르핀보다 더욱 강력한 의존성을 갖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보통 모르핀 100mg은 헤로인

홍성선 목사

마약정보학박사

NGO세계기독청 설립이사장



4mg과 동등하게 간주된다. (합법적인 또는 의학적인 용도는 없다) 헤로인의 효과는 모르핀과 같은 긴장, 배고픔, 성욕, 우울증, 공포감을 억제하며 만족감과 포만감을 느끼게 한다. 이는 모르핀보다 3배 강한 효과가 있다.

정맥주사 및 피하주사시 발생하는 합병증 파상풍: 대부분 헤로인을 피하주사로 맞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며, 원인은 알 수 없으나 남자보다 여자에게서 더 자주 나타난다.

간염 : 멸균되지 않은 주사바늘로 인해 옮겨진다. 간염은 황달에 걸리게 하고 오심을 유발하며 몸을 허약하게 만든다.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A3 칼라 복사기에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세계최초 유성(안료)잉크

Since 1989~ 30년을 한결같이~

- ✓ 물에 번지거나 용지가 휘지 않습니다.
- ✓ 소모품 비용 획기적 절감! (90%)
- ✓ 기존 컬러복사기의 1/10 정도

축 2019 추수감사

(2019년 기독교 관련 신문에 실린 광고입니다.)

270만원 → 170만원

컬러주보복사기 출시

(복사, 프린트, 스캔, 팩스, WiFi, 양면 기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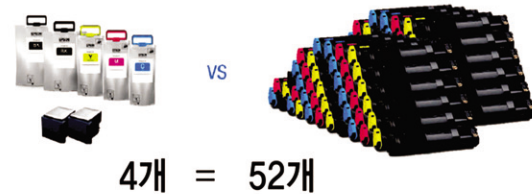
- ✓ 3단 6면주보 출력 가능
- ✓ 4단 8면 주보 출력 가능
- ✓ 주보 양면 연속 가능 (카세트에서 주보가능)
- ✓ 1m 20cm 배너 출력 가능
- ✓ 현금봉투, 소모품, 대봉투 출력가능
- ✓ 후면 급지대 (80매 적재가능)

※컬러를 물 쓰듯 쓴다 소모품 비용 획기적 절감

이젠 비용 걱정 없이 컬러 인쇄를 마음대로~

- 자동 양면 인쇄 및 양면 스캔 지원
- 12.8cm 대형 컬러 터치 패널
- 대용량 용지 급지함 지원
- PC 없이 스캔 파일을 자유롭게 전송

- 중요한 문서는 비밀번호 설정으로 보호
- 경제적인 슈퍼 대용량 잉크 카트리지로 유지비용 절감
- 동급 최강의 빠른 출력속도(24~34매)



4개 = 52개

테이블(15만원) 옵션

이번에 주문하시는 교회에 한하여 잉크 한 세트(B/K, C, M, Y 4개)를 더 드립니다.

(250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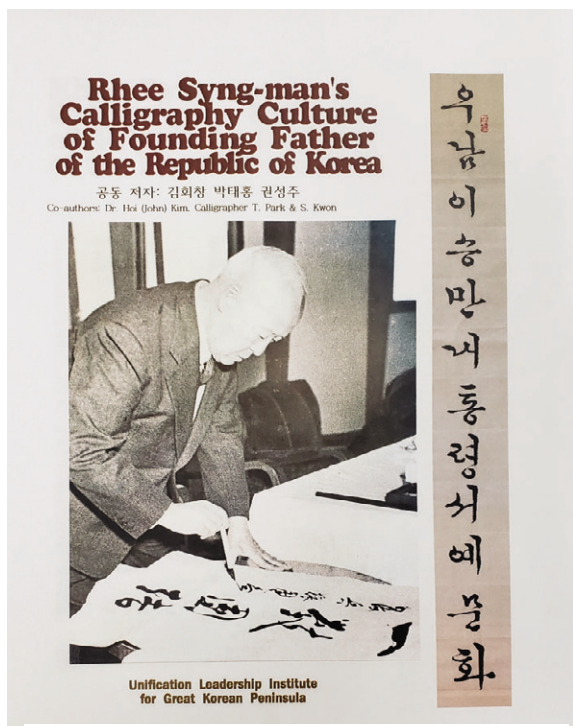
(550매)

특별
할인

소모품비용
90%
절감!

이승만 대통령 서예문화 출간 포럼

남가주한국예비역기독교인회 주최



▲ 이승만 '서예문화' 책 표지.

남가주한국예비역기독교인회(회장 김희창 목사)는 지난 9일(토) 오전 11시 LA말씀새로운교회(2975 Wilshire Blvd. #415, LA)에서 남가주원로목사회(회장 이국봉 목사) 초청 정기에 배 및 『이승만 서예문화』 출간 포럼을 개최했다.

서예문화는 이승만 대통령 당시 국민과의 최고 소통 방식이었으며, 일반적인 말보다는 고사성어 사용의 소통 방식을 통해 실재적인 지도력을 발휘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나라를 세우면서 '민중정기, 국

부병강 영세자유'라는 지도력의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경천애인'이라는 사자성어 서에는 그의 지도력의 중심을 보게 하는 '하늘을 두려워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하는 기독교적인 서예문화'이다.

실례로 해병대를 방문한 이승만 대통령은 '무적해병'이라는 휘호를 주어 지금도 부대 입구에는 그 문구가 새겨져 있고 병사들은 그렇게 훈련받고 있다. 육군 9사단 방문에서는 '백마부대'라는 휘호를 하사하여 오늘날까지도 이어

져 내려오고 있다.

칼럼니스트 김택규 목사가 사회로 출간 서적에 대한 발표를 한 후 김희창 목사가 '이승만 5대 서예문화'에 대한 발표를, 박태홍 서예가, 이승만 대통령 자제 이인수 박사, 권성주 서예가 등이 각각의 주제로 발표 및 축사에 나섰다. 주최 측은 이날 포럼 참석자들에게 무료 신간 증정과 점심식사를 제공하는데 정성을 다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비전신문
이영민 기자

한·미 교회간 선교사역 비전 공유

군포제일교회, 미 살롱 퍼스트장로교회와 선교협약 체결

“군포제일교회가 운영하는 성민원의 사회복지 사역과 경험 배우고 싶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살롱 퍼스트 장로교회 담임목사 등 10명의 한국교회 친선방문단 일행이 이 지난 10월 16일(수) 군포제일교회(권태진 목사)를 공식 방문해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의 선교사역과 복지사업에 관해 상호 교류 협력을 담은 선교협약을 체결하고, 군포제일교회가 운영하는 복지기관인 성민원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퍼스트 장로교회 매튜 쿠키엔 담임목사와 여호수아 엠비 부목사, 크리스찬 토로 선교부장 등 교회 관계자 10명은 고세진 박사(전 아세아연합신학대 총장)의 인솔로 군포제일교회를 방문해 한국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 진행하는 선교사역과 특별히 사회복지사업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사회복지사업을 통해 복음의 지평이 넓어지고 또 지역사회에 어떻게 뿌리 내리고 있는지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권태진 목사는 “몇 년 전에 살롱 퍼스트장로교회를 방문했을



때 한국교회와 미국교회간의 실질적인 선교 교류와 협력의 기회가 있기를 기대했었는데 그 바람대로 하나님께서 이번에 교회 관계자분들이 한국에 와서 교회와 성민원을 방문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 기에 더욱 반갑고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실질적인 교류 협력의 장이 펼쳐지기를 기대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매튜 쿠키엔 담임목사는 방문단을 대표해 “방문단을 환대해 주어 감사하다”면서 “미국의 교회들은 지역사회를 구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대적 사명을 고민하고 있다”며 “군포제일교회가 지역사회 커뮤니티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과 복지를 실천적으로 감당하는 교회라는 이야기를 오래

전부터 듣고 알았는데 이번에 직접 그 현장을 방문하게 되어 매우 뜻깊고 가슴 뭉클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퍼스트장로교회 방문단은 성민원 각 시설장들로부터 복지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며, 오후에는 성민원 군포시니어클럽을 방문, 노인들의 자활과 취업을 돕는 현장을 견학했다. 이어 수요일에 참여하는 한편 두 교회간 자매결연을 통해 선교 사역과 비전, 사회복지사업의 방향과 목적, 아이디어를 공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퍼스트 장로교회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 케스트니에 위치한 미국 전통 장로교회로 1887년 설립돼 올해로 창립 132주년을 맞았다.

홍재철 목사 “너 성령의 사람아” 집필 출간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를 향한 진심어린 충고도 수록



▲ 홍재철 목사 손정순 사모 (한기총 대표회장 취임식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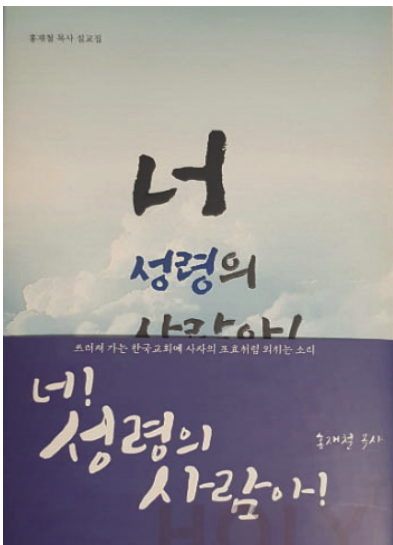
회고하면서 집필한 설교집 <너 성령의 사람아!>를 출간했다.

홍재철 목사가 출간한 <너 성령의 사람아!>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 △너 성령의 사람아 △주님과 함께 가는 길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등 4가지 큰 차트로 구성되어 있고, 집필한 내용은 그동안 연합활동을 해오면서 설교한 내용들로 홍 목사의 열정과 믿음, 사명, 비전 등이 고스란히 배어 있다. 특히 절체절명

성도, 한국교회 앞에 닥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내용은 △정체불명의 사이비를 추방해야만 한국교회는 살아남는다 △개혁만이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유일한 대안이다 △회개의 기도운동만이 한국교회가 살 길이다 △성령운동으로 영적 타락을 회복하는 길이다 △제3의 성령운동을 일으켜야 한다 등 대안은 오늘 생명의 색을 잃어버린 한국교회에 큰 울림을 주고 있다.

이밖에도 홍 목사는 부천기독교총연합회 6.13지방선거 경기도 당선자 축하 감사예배 설교를 비롯해 백기환 목사 전국 임성 환송 예배, 절기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한 설교 등으로 엮은 육고들은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은사가 넘치는 귀한 기회를 제공할 전망이다.

아울러 “우리의 삶이 남아 있다면 그것은 분명 날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남아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우리의 심장이 쉬지 않고 뛰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쉬지 않고,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역설하고, 주께서 갈



▲ 홍재철 목사가 설교집 <너 성령의 사람아!>출판 감사

렘처럼 더 큰 힘과 능력 주시어 남은 생애 독자 여러분을 통해 글로써 더 많은 은혜와 간증들을 나누고 생명의 복음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기도한다”며 덕담을 나누면서 포부를 밝혔다.

한편 원로 홍재철 목사는 경기도 부천시 고강동에 솔로몬교회(구, 경서교회)를 개척해 꾸준한 성장과 부흥으로 부천과 고강동을 빛내고 있는 중형교회로 우뚝 서 있다.

사람은 사랑에 반응한다

모든 사람은 인간 됨의 회복 위한 사랑의 돌봄 필요

사랑이란 단어만큼 잘못 인식된 말도 없습니다. 많이 오염된 단어입니다. 저는 사랑이란 말을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다시 정의하고 싶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너무나 존귀한 존재입니다. 한 인간이 가진 생명의 무한한 가치를 생각해 보셨나요? 인간은 누구나 사랑받을 권리, 소중함 존재로 대우받을 천부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문제는 인간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서 생깁니다. 아내를 소중히 여기면 상처받지 않습니다. 자녀를 귀하게 여기면 분노하지 않습니다. 직원들을 귀하게 생각하면 사기가 올라갑니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도 귀하게 여기면 태도가 달라집니다. 모든 사람은 진정한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인정

받길 원합니다. 따뜻한 만남을 그리워합니다. 저는 언제부터인가 ‘따뜻한 난로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열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직업들 중 보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팔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즉 무형의 자산을 팔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면 존경심이 앞섭니다. 보험은 손에 잡히지도 않고 당장 득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동차나 냉장고, 건강식품 같은 것들은 눈에 보이기에 상대적으로 팔기 쉽습니다. 보험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과연 무엇을 팔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미래에 대한 보장을 판 것이 아닙니다. 사망했을 때, 암에 걸렸을 때, 교통사고 났을



▲ 황성주 박사 (국제사랑의봉사단 대표)

때 생기는 금전적 보상을 판 것이 아니라 ‘사랑’과 ‘관심’을 판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가를 알게 해준 것입니다. 끈질기게 고개를 찾아와서 설득하면서 ‘자신이 소중한 사람’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사랑에 목말라 있기 때문에 고객들은 바로 그 사랑에 반응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돌봄을 통해 인간됨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사랑의 돌봄을 파는 세일즈맨이 최고의 세일즈맨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대표적 부흥강사인 고 신현균 목사와 함께 부흥운동을 하면서 한국교회 부흥사의 한 획을 그은 백학 홍재철(솔로몬교회 원로) 목사가 지나온 성역 40년 동안

의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를 향한 한량없는 사랑과 진심어린 충고가 고스란히 담겼다.

홍재철 목사는 한기총 18, 19대 대표회장을 역임했으며 마지막 설교를 통해 한기총 총대와 1200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SINCE 1983.6.13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는 열정 추수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http://www.mokpojuan.com

멀티사이트 교회

The Multi Site Church

2019년 추수감사

2019년 11월 17일 주일예배

설교 모상련 담임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목포주안교회

목포주안교회: 목포시 청호로 159(북항동) 전화/061-272-4908, 276-1006

남악주안교회: 무안군 삼향읍 남악5로 60번길 17 전화/061-287-0692

용해주안교회: 목포시 용해지구로 61(연산동) 삼양빌딩 301호 전화/ 061-277-0691



2019 주님과 함께 가정예배 소진우 목사(예복 교회 담임 / 본지 사장)



소진우 목사

- 예복교회 담임
- 지저스타임즈 · JTNTV방송 사장
- 라이프월드미션 총재
- 극동방송 칼럼리스트
- 백성TV칼럼리스트
- CTS 칼럼리스트

제 목: 나의 삶 속에서 1 성경: 창 45:1-15, 찬 452장

나의 삶 속에서 과거에 안 좋은 것은 지워버립시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구덩이에 묻으려고 했던 것, 종으로 팔아버린 것 등을 용서하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아픔을 잊어버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당신들이 나를 이 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창45:5).” 요셉은 형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먼저 애굽에 보내셨다고 고백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제 목: 나의 삶 속에서 2 성경: 창 45:1-15 찬 482장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형들이 많이 찢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보면 요셉의 상처가 치유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관 자라 (창45:4).”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이 있었을 때 과거의 상처가 치유됩니다. 말과 물질로 아프게 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과정속에서도 하나님의 간섭으로 상처가 치유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음을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제 목: 그 소망으로 1 성경: 살전 4:13-18 찬 93장

예수님은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동에서부터 서에까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오십니다. 주님이 진짜 오셨나, 주님이 진짜 부활하셨나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는 제자들이 낙심하며 자신의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모두 다 순교까지 당합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음을 깨달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 주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 목: 그 소망으로 2 성경: 살전 4:13-18 찬 314장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살전 4:18).”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시고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납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한 줄기라고 생각하면 못 받아 줄 것이 없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하지 말고 위로자, 격려자가 됩시다. 복은 안에 서로 위로하며 하나가 됩시다. 이단에 빠지지 말고 서로 권면하고 이타되지 맙시다. 그 하늘 소망으로 끝까지 함께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목: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 시편 42:1-3 찬 407장

성도로써 살아가다 보면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할 때면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환난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어지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을 ‘사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인정했습니다. 그들이 직접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것 같아 보일 때도 절망하지 말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 목: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 성경: 시편 42:4-5 찬 515장

본문 기자는 절기와 성일을 지키지 못하고 있고 기쁨의 찬송도 부르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의 일을 회상하며 마음에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그는 스스로에게 하나님을 바라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그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도 낙심치 말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집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제 목: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성경: 시편 42:6-8 찬 86장

환난 때에 스스로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는 것은 신앙인의 바른 자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본문처럼 낮에

는 원수들이 해하려고 우리를 찾지만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며 밤이 되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제 목: 기쁨의 찬송 성경: 시편 43편 1-5 찬 95장

본문의 ‘경전치 아니한 나라’는 ‘자비하지 않은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본문 기자가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 작은 자비심도 베풀지 않고 오히려 잔혹하고 부당하게 대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도 그는 구원과 회복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러 하나님께 단을 쌓을 것을 기대합니다. 본문에서 그가 결국에는 하나님으로 인해 큰 기쁨을 얻을 것을 확신했듯이 우리로 하여금 기쁨의 찬송을 부르게 하길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갑시다.

제 목: 그분의 능력 성경: 시편 44:1-3 찬 429장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그들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셨기 때문이듯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우리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셔서 오직 그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깨닫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그분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 목: 왕이신 예수님 성경: 시편 44:4-5 찬 38장

본문에서 그는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왕은 백성을 통치하고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백성을 보호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공의롭고 선하시며 전쟁에 능하신 용사이십니다. 본문 기자가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구하듯 우리는 우리의 대적 마귀를 물리치도록 도우시는 만유의 주시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제 목: 약해지지 마십시오 성경: 시편 44:17-21 찬 336장

본문 기자는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 앞에서 성실히 행했다고 고백합니다.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고 신앙을 저버리지도 않았으며 그분과의 언약도 어기지 않았습다. 살아가다가 닥치는 큰 고난 가운데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고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그분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제 목: 응답의 확신 성경: 시편 44:22-26 찬 406장

본문 기자의 생각에 하나님은 주무시고 있는 것 같았고 자신들을 영원히 버리신 것 같았으며 그분의 얼굴을 가리고 계신 것만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과 압제가 오래 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

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간구합니다. 그분께서 언젠가는 들으시고 도우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목: 복된 왕 성경: 시편 45:1-2 찬 89장

본문 기자가 칭송하고 있는 왕이 누군가에 대한 견해는 학자들마다 다양합니다. 애굽 왕의 딸과 결혼한 솔로몬이라고도 하며 복음주의 학자들은 요람 왕으로도 봅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왕을 칭송하는 표현들처럼 아름답고 은혜로우시며 복된 왕으로 칭송받으실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고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을 본받아 살아감으로 여러분에게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제 목: 용사이신 예수 성경: 시편 45:3-5 찬 585장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분은 위엄있는 왕이시며 대적과 싸워 승리하는 용사이십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할 용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시라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이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우리 대적 원수 마귀의 공격 또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용사이신 우리 구주 예수께서 원수의 심장을 찢어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 신앙예세에 『순종』 ||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들!

창 1:31절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매우 좋았더라. 그 저녁과 아침이 여섯째 날이더라”(창)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창)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지, 정, 의의 인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슬퍼하시며, 노하기도 하시고 질투하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것도 있고 싫어하시는 것도 있다. 기뻐하시는 것도 있고, 미워하시는 것도 있다. 창 1장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일곱 번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좋아하신 일곱 가지는 성경 전체에 적용되는 말씀이다. 죄로 타락 전에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은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지만 둘째날 공창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아니했다. 공창은 사탄의 거처가 된 까닭이다.

1.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1:4),

빛은 생명이다. 빛이 없는 곳에 아름다움이 없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엡 5:9), 빛은 모든 흑암과 어두움을 물리치고 미의 세계를 창조한다.

2. 물이 드러나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1:10)

물이 물속에 숨겨져 있으면 무엇인지 분간할 수가 없다. 바다와 육지를 분리해서 물이 드러나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흑암속에 묻혀 있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시지 않으셨다.

3.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1:12)

열매 없는 나무는 짝어 불에 던진다. (마 3:10) 열매 없는 나무는 토질만 버리고 예수님을 실망케 한다. (마 21:19), 성령의 열매는 아홉가지(갈 5:22),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했다. (마 7:17).

4. 빛과 어두움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1:18)

빛과 어두움이 함께 할 수 없다. (고후

6:14), 하나님의 자녀들이(빛) 어두움의 자녀(사탄)와 사귀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시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성별을 요구하신다.

5. 생육하고 번식하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1:21),

생육과 번식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은 창대케 하시기를 원하신다. 번성이 없는 것은 무생명의 죽음의 세계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시었다.

6. 육축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1:25)

각기 개성을 따라 활동하고 변역하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신다. 사람과(영) 짐승(육)을 구별하시고 사람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부여하시었다.

7.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심히 좋았더라. (1:31)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좋았더라고 하셨다. 특별히 그 말씀대로 되니 좋고 그 뜻에 순종하니 더욱 좋았다. 사랑이 있으니 좋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더욱 좋았다고 하셨다. 마라나!

소진우 목사 2018년-2020년 성회일정

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교회와 동역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담임 소진우 목사
PASTOR SO JIN WOO
H·P : 010-8753-7179
교회 : (02) 934-1232(대)

- 열방부흥선교협의회 총재
- 극동방송 칼럼리스트
- CBS TV 칼럼리스트
- 지저스타임즈 사장
- JTN TV, 신문 칼럼리스트

2018년 11월
4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
5-7 행복이넘치는교회(이영건 목사)
8 안양갈매산금식기도원(이예제 원장)
12-14 영광교회(송성준 목사)
15 보리바전교회(구경모 목사)
19-21 경천교회(김원경 목사)
26-28 재천예복교회(강대중 목사)

2018년 12월
2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
3-5 살롬교회(고정희 목사)
10-13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
16-21 본교회부흥회
25-29 송구영신을 위한 신상기도

2019년 1월
1-3 강기동부지방연합성회(화성총장장 목사)
3 한일산기도원(이영준 원장)
5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
6-9 주영광교회(김진관 목사)
14-17 광은기도원(한배 원장)
21-23 평강교회(김정규 목사)
28-1 선교지방문

2019년 2월
3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
4-7 감림산기도원(이옥란 원장)
11-14 임마누엘교회(황왕진 목사)
17-20 부야기동교연합성회(화성신전제 목사)
25-27 보리바전교회(구경모 목사)

3월은 축복심방의 달
2019년 4월
1-3 사랑교회(김성준 목사)
7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
8-11 예복교회(강대중 목사)
15-18 산돌교회(한상길 목사)
22-23 정기노회
24-25 파천예복교회(노영수 목사)
28 희망찬교회(정복관 목사)
29-1 삼성교회(김규명 목사)

2019년 5월
6-8 천하성교회(하루 목사)
13-16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
20-22 동광교회(이경열 목사)
27-29 풍성한교회(윤정희 목사)

2019년 6월
2 천보산기도원(우정제 목사)
3-5 천성교회(이원정 목사)
9-13 본교회부흥회
17-26 미추성회
27-28 세성열린함세미(내정복권 회장)

2019년 7월
7월1-3 모리아교회(조석희 목사)
4 평화의동산(피종진 원장)
7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
8-11 다니엘교회(김명수 목사)
15-19 신교지신학여름세미나
21-27 특별심야기도회(본교회)
29-1 설화산기도원(노베드로)

2019년 8월
4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
5-7 남부지방연합수련회
9 한일산기도원
12-22 광은기도원(한배 원장)
19-22 감림산기도원(이옥란 원장)
26-29 천문기도원(최정숙 원장)

2019년 9월
2-7 인도선교
9-10 노회군선교지방문
15-17 본교회부흥회
18 의산성회(황교)
23-26 안양금식기도원
27 양평금식기도원

2019년 10월
1-6 선교지지역초청주간
7-9 남포월드컨퍼런스
14-15 정기노회
17-18 성소기도원
21-24 베데스다교회
28-30 청원지구초교회

2019년 11월
4-7 광선수양관
10-13 푸른교회
14 보리바전교회
18-22 필리핀선교회(김세미나)및종교
25-28 포천제일교회

2019년 12월
2-3 삼릉교회
9-12 천보산기도원
15-18 본교회부흥회(강사)김종복목사)
23-26 성탄절주간
30-31 송구영신을위한신상기도

2020년 1월
6-8 상대교회
13-16 광은기도원
19-22 한길교회
27-31 선교지방문

2020년 2월
3-6 감림산기도원
10-12 양평순복음교회
17-20 부여한사랑교회
24-26 천주산남교회

3월은 축복심방의 달
2020년 4월
30-4/1 포곡제일교회
5-8 열린문교회
13-14 정기노회
14-16 파천예복교회
20-22 수산교회
26-29 은천교회

2020년 5월
4-6 수지선교회
10-13 허남홍성교회
19-23 미추성회
24-28 미추성회

2020년 6월
1-3 모리아교회
8-10 양주신성교회
14-17 본교회부흥회(강사)박순애전도사)
22-25 하늘문교회
29-7/2 양양금식기도원

2020년 7월
6-10 선교지 신학생 여름세미나
13-16 임마누엘치유센터
20-23 여수포도원교회
27-30 다니엘민족기도원

2020년 8월
3-6 금산임마누엘수양관
10-13 광은기도원
17-20 감림산기도원
24-27 천문기도원
31-9/3 소망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복교회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누원로40 (장암동)



웨신 총회장 이·취임 및 총회·노회 임원워크숍

총회, 노회를 위한“정체성과 리더쉽”강의 허창범 목사

“마침내 잘 되는 웨신 총회”(창 26:12-16)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웨신)는 지난 11월 4일(월)~5일(화)까지 충북 보은군 속리산속리산로속리산콘도호텔에서 전국에서 보내온 축하 화환으로 행사장 인파를 두른 대축제가운데 103회기 총회장 허창범 목사 이임과 104회기 총회장 박정균 목사 취임식 등이 성대하게 진행되었으며 2019년도 총회, 노회 임

원 워크숍을 통한 단합대회를 개최했다. 4일 오후 5시 제1부총회장 정순옥 목사의 인도로 1부 개회 예배가 시작되어 서기 황봉기 목사의 기도, 회의록서기 이태균 목사가 성경봉독(창 26:12-16)하고, 호남노회 윤석희 목사의 특송에 이어 총회장 박정균 목사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므로”라는 제하의 말씀

을 선포했다. 박정균 총회장은 이삭이 그 땅에서 그 해에 백 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므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듯이 웨신총회와 섬기는 교회마다 백 배나 얻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는 결실을 이루자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종들은 항상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성령님의 인도와 감동이 있기를 기원했다.

또한 박 총회장은 잠 27:23절 “네 양 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네 소 떼에게 마음을 두라”는 말씀을 인용 참된 목자가 되자고 주문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이삭이 되자면서 다투거나 법밖 따지지 말고 열심히 잘 가꾸고 우물을 파는 자리가 되어 마침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종들이 되자고 했다. 그러면서 신 8:16절 말씀처럼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즉 낮추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면서 이삭처럼 마침내 잘 되는 웨신 총회원 모두가 되기를 기원했다.

이어 총무 이준영 목사의 광고에 이어 증경총회장 이흥규 목사의 축도로 개회 예배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직전총회장 허창범 목사의 식사 기도로 덕담을 나누며 즐거운 만찬의 자리가 되었다.

2부 순서는 3부총회장 마순덕 목사의 사회로 총회장 이·취임식이 시작되어 총회 회계 김복래 목사가 기도를, 사회자 마순덕 목사는 총회장 박정균 목사의 약력을 다음에 소개했다. ‘박 총회장은 1957년 12월 4일 전남 신안군에서 출생하여 5살 때 한글을 깨우쳤으며, 어려서부터 독서광이었고, 초등학교 5학년 때 학교 도서관에 비치된 책들을 다 읽었고, 더 이상 읽을 책이 없어 울었다고 한다.

초등학교 졸업 때는 교육감 상을 수상했고, 호남의 명문 목포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다. 그 후 박 목사는 큰 비전을 가슴에 안고 어려운 고시 공부를 하던 중 대형사고로 인해 크게 불편한 몸으로 고향에서 휴양을 하던 중 겨울철 부흥집회에 참석하여 주님을 만났으며, 3일 후에 단에 올라 설교를 하는가 하면 3개월 후에 신학교에 입학하여 1개월 만에 교회를 개척했으며 이외에 체험적인 특별한 간증이 많다고 한다.

박 목사는 여러 교회를 시무했으며 가는 교회마다 역사상 전무후무한 부흥을 일으켰고, 특별히 전남 영암 제일교회를 시무하면서 약 20년간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만 목회를 하면서 30명의 성도가 500명의 성도로 부흥되었고, 지역 사회의 봉사는 물론 약 200명 이상의 불우한 이웃들에게 선교와 구제의 손길을 펴왔다.

박 목사는 목회할 당시에 교회의 체육대회가 영암군 행사보다 더 크고 화려하게 했다고 한다. 그 후

1991년 5월 2일 박 목사는 목사 안수를 받았으며 신학교 강의는 물론 지금까지 약 500교회 이상, 많은 곳에 세미나와 부흥회를 인도했다. 또한 박 목사는 서울신대와 신대원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사회복자학을 졸업했으며 현재 원우회 회장을 맡고 있다. 자세한 것은 CTN TV를 통해 많은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 (http://jmtv.kr)참고

이어 이임하는 제103회 총회장 허창범 목사는 취임하는 제104회기 총회장 박정균 목사에게 취임패를 전달하고 신임 총회장 박정균 목사는 이임하는 허창범 목사

에게 공로패와 다섯 돈의 금반지를 증정했다. 아울러 박 총회장은 총회 신임원들에게 취임패를 전달하고, 각 노회 신임 노회장들에게도 축하하며 취임패를 전달했다. 이어 이정해 목사가 축가를, 증경총회장 이영종 목사, 이동근 목사, 칼빈신학대학교 국제총장 정창원 목사 등이 축사를 전하고, 수도권회 김경진 목사가 축가 했다. 아울러 증경총회장 이흥규 목사, 이규목사가 권면에 나섰으며, 직전총회장 허창범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제2교시에는 4부총회장 성용구 목사가 진행을 맡고 총회와 노회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으며, 제3교시에서 직전총회장 허창범 목사의 특강으로 “목회사역에 필요한 주요 상담이론과 실제”에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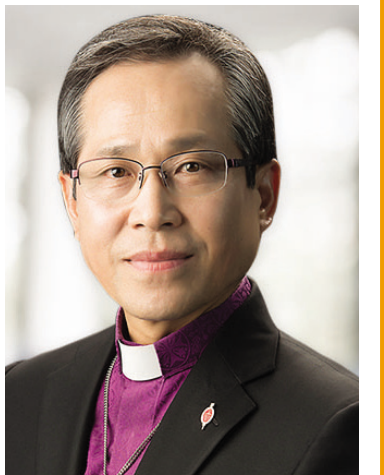
한 주제로 총회 임원 및 노회 임원 워크숍이 진행됐다.

다음날 5일(화) 오전 7시 제2부 총회장 김현수 목사의 인도로 폐회예배가 진행되어 부서기 김기출 목사가 기도를, 부회의록서기 최이삭 목사가 민 27:18-23절을 봉독하고, 증경총회장 이영종 목사는 “광야교회(노회)이·취임”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총무 이준영 목사가 광고를 한 후 증경총회장 이동근 목사의 축도로 1박 2일간의 총회장 이·취임식과 총회, 노회 임원 워크숍을 마쳤다. 이날 영서노회장 맹영기 목사는 朝食을 위한 기도가 있은 후 즐거운 만찬으로 덕담을 나누고 섬기는 교회와 일터로 발길을 재촉했다.



교회협 신임 회장에 윤보환 감독 당선

“교회의 거룩성 회복과 사회 갈등 극복과 화해하는 일에 힘쓸터”



▲ 사진 윤보환 감독이 교회협 신임 회장에 선출됐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교회협, 총무 이흥정 목사)는 18일 서울 정동제일교회(감리교, 담임목사 송기성)에서 “평화를 이루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시편 34:14, 요한복음 13:34-35, 고린도전서 9:19, 22-23)를 주제로 제68회 정기총회를 열어 감리회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회장으로 선출했다.

윤 회장은 이날 오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총회 주제에 맞게

“교회와 사회 안에 존재하는 갈등을 극복하고 화해하는 일과 민족의 화해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좌파와 우파의 극심한 이념 갈등을 겪고 있는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회의 거룩성 회복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피종진 목사 초청 11월 국내·외 성회



피종진 목사

010-5255-7777
Godbless3333@gmail.com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40
T: (02) 3411-9191
F: (02) 3401-7770
F: (02) 3411-9111

- 3(주) 오후 4(월)~ 6(수) 7(목) 저녁 11(월) 오전 11(월)~13(수) 14(목) 오후 15(금) 17(주)~19(화) 20(수) 오전 21(목)~23(토) 22(금) 오전 24(주) 저녁 25(월)~28(목) 29(금)
- 완주 송광사랑의교회(순순애 목사) ☎ 010-8407-7322
- 아산 설화산기도원(노베드로 목사) ☎ (041) 531-0690
- 성남 주영광교회(전옥관 목사) ☎ 010-2445-1691
-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총동문회
- 장소: 연세대학교 동문회관 ☎ (02) 2123-4760
- 속초 중부교회(황재경 목사) ☎ 010-3314-8190
- 속초 임마누엘기도원(원장 문종복 목사) ☎ 010-3323-4080
- 대전 도곡기도원(원장 이종범 목사) ☎ 010-7918-9191
- 인천 국제은혜교회(김금숙 목사) ☎ 010-5689-0091
- 여의도순복음영평기독교(원장 이태근 목사) ☎ (031) 772-9113
- 주최: 기독교부흥운동협의회(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김수봉 목사)
- 시흥 사랑의빛교회(남보석 목사) ☎ 010-7220-0733
- CTS7독고TV 부흥사연수원
- 경소: 아산군빛교회(김성권 목사) ☎ (041) 543-0191
- 회전 광덕교회(이만규 목사) ☎ (033) 441-4462
- 제222차 해외성회(222nd Overseas Assembly)
- 필리핀(Philippines) 갈라바시 Bethel Praise교회(하용철 선교사) ☎ 010-4101-4353
- 필리핀(Philippines) 갈라바시 체육관 원주민대교회



축예장(웨신)총회 제104회 총회장 임원 이·취임

2019 추수감사 / 총회 노회 임원 워크숍, 성황리 성료

직전총회장	총회장	제1부총회장	제2부총회장	제3부총회장	제4부총회장	총무	서기	부서기	회의록서기	부회록서기	회계
											
허창범 목사 두른송교회	박정균 목사 번성교회	정순옥 목사 미래선교회	김현수 목사 꿈너머꿈교회	마순덕 목사 사랑하는교회	성용구 목사 송석교회	이준영 목사 낙타방송	황봉기 목사 사랑제일교회	김기출 목사 빛가람수양관	이태균 목사 나누리교회	최이삭 목사 소망교회	김복래 목사 꿈과희망교회

감사	감사	지도위원	지도위원(감사)
			
이이중 목사 제일교회	이동근 목사 하은교회	이흥규 목사 지구촌교회	이영종 목사 빛교회



총회사무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172, (302호)
 ☎ (02) 835-2606-7 Fax (02) 835-2608 http://ws21.org

목사 안수 및 교단 가입 문의
010-8476-5282
총회장 박정균 목사